DAEGU FC ANGEL CLUB MAGAZINE

Angel Club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올이기

축구는 대구다

WINTER, 2017, Vol.2

Angel Club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Angel Club〉

계간 / 2017년 8월 9일 등록 / 등록번호_수성, 바00009

2017년 11월 28일 발행 / 인쇄 : ㈜케이프린텍(한금재)

발행기관 :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

발행 · 편집 · 디자인 : ㈜솔트커뮤니케이션즈(최종태)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163(중동) (우. 42151)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우. 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

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 DGB

2017, DGB대구은행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립니다

DGB대구은행은 언제나 고객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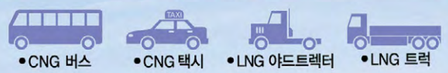
DGB Daegu Bank 50th Anniversary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자동차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200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천연가스 자동차는
도시지역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송용 천연가스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보다 푸르고 깨끗한 초록빛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종류



• CNG 버스 • CNG 택시 • LNG 야드트렉터 • LNG 트럭

오염물질이 적은 청정 에너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된 깨끗한 에너지

공기보다 가벼운 안전 에너지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이 되어도 대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며 발화온도가 높은 안전한 에너지

유지비가 절감되는 경제 에너지
유류 대비 경제적인 에너지

생활이 편리해지는 실용 에너지
전세계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실용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

AUTUMN, 2017, Vol.2

CONTENTS

Angel-with-us

08 엔젤들을 소개합니다
- 박해대 가족엔젤
- 다이아몬드 엔젤(서한 조종수 대표)
- 김동수 엔젤(1호 NCO)
- 김미숙 엔젤(김밥천사)
- 김동규(열혈 커플)

18 기업탐방
- 세신정밀
- 이종원 엔젤(KOG_게임업체)

22 엔젤협약기관 소개 : 대구보건대학교

24 대구시장 인터뷰

26 1004명 해냈다 (강병규 본부장)

28 동성아트홀

30 이 한통의 편지

32 브랜드데이 스케치 기사(서한, 태왕)

34 대학에서 본 엔젤클럽(홍덕률 대구대총장)

35 미디어에서 본 엔젤클럽

36 크루가 본 엔젤클럽

35 미디어에서 본 엔젤클럽

40 엔젤동정

44 엔젤명단

Daegu FC Report

52 2017년 시즌 돌아보기

54 안드레 감독 선임

56 한희훈을 만나다

58 조현우 3년연속 K리그 베스트 11 GK 수상

60 주니오 선수 활약상

62 세징야 선수 부부 인터뷰

66 대구FC의 미래! 지역 축구부 탐방!

68 [선수단 프로필] 업데이트 + 2017 선수단 경기 기록

Half Time Talk

80 축구의 나라를 가다
- ② 스페인 바로셀로나

84 현대사진예술의 거장을 만나다.
- ② 유진 스미스

88 치과의 안티에이징, 라미네이트

90 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가 아닌가요

92 건강칼럼-무릎관절

94 미술 감상 아는만큼 보인다

96 보험

100 FOOTBALL & CULTURE CALENDER

103 독자게시판
- 우편엽서 / 엔젤클럽

Angel Club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Angel-with-us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에 불과하다.
함께 보이면 우리는 바다가 된다."
-류노스케 사토로

2017
축구는 대구다

열혈 가족엔젤
박 해 대 가족

자녀에게 대구사랑 가르치기 위해 가족엔젤이 되었어요~

미래테크 박해대 엔젤, 아내, 아들, 딸, 사위까지 모두 다섯 명의 엔젤이 한 가족이다. 이 가족은 엔젤클럽에서 자녀들에게 대구사랑, 대구의 정신, 대구의 비전을 가르치는 중이다.

검단공단 미래테크, 이름만으로 일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찾아간 미래테크는 외부에서부터 '깜놀'했다. 첨단빌딩, 대기업 사옥 못지않은 깨끗한 건물, 그 속에 미래가 창창한 미래테크가 있었다.

회의를 급히 마치고 취재하러온 엔젤을 맞이해주신 박해대 엔젤은 "뭐 그냥 열정적인 친구 모습이 좋고 아름다워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라도 하자 하는 마음인데, 뭘 취재까지 하시나"며 겸연쩍게 웃었다.

이호경 회장과 절친이며 1호 엔젤인 배장수 엔젤의 릴레이를 받은, 말하자면 개국공신 박해대 엔젤은 아내(서순옥씨), 아들(박성준씨), 딸(박소이씨), 사위(안조셉씨) 모두를 엔젤에 가입시켜 엔젤천사(1004)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가족엔젤이다.

엔젤클럽에 가족을 모두 가입시킨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따라왔다.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대구에 대한 확신과 대구의 비전을 심어주고 싶어서'라고 한다.
박해대 엔젤은 2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박소이 엔젤(딸, 31세)이 2년 전 경영지원부로 들어왔고, 미국에서 공부 중이던 아들을 올 11월에 불러들였다.
그런데 자녀들을 불러들이고 나서 보니, 서울에서, 외국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들에게는 대구에 대한 사랑, 대구에 대한 애착, 대구의 비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사업을 가르치기 전에 대구를 지키고, 대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고민이 많았을 때, 엔젤클럽을 만났다.

아내 서순옥 엔젤은 남편 박해대 엔젤로부터 엔젤클럽의 정신과 스토리를 듣고 무릎을 쳤다고 한다. '바로 여기다. 자녀에게 대구에 대한 희망을 전하고 대구의 비전에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엔젤클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 번 운동장에 나와 응원을 함께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
아직은 운동장까지 자녀들을 불러내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온가족이 운동장에 나가 그 열정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마음속에 대구의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생각이다.

박해대 엔젤은 "남자는 나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엔젤클럽에 가입한 것도 그 이유다. 친구가 열정적으로 뛰는 그 일이 멋진 정신을 갖고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축구는 잘 모르지만 대구시민을 즐겁게 하는 구단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하자 생각했다.
그는 또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것이다"고 했다.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기에 늘 바른 모습을 보이며 함께 하고자 노력한다.

대구FC도 마찬가지다. 그는, 흥행과 성장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시간을 비워주고 비용을 부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FC가 시민구단인 이상, 그들은 대구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구FC를 후원하는 엔젤클럽은 대구의 에너지를 키우는 천사들이다.

그는 "젊은 2세들이 대구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대구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대구의 미래가 있다"며,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바르고 강인한 정신을 물려주기 위해 엔젤클럽은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고 말했다.

박해대 엔젤이 경영하는 미래테크의 슬로건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회사'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미래테크는 '오너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말한다. 말뿐만이 아니다. 미래테크는 검단공단에서 복지가 제일 좋은 회사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미래테크는 직원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고등학교까지는 전액, 대학교는 50%다. 뿐만 아니라 고졸, 전문대졸 직원들이 대학진학을 원하면 시간을 내주는 건 물론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미래테크는 경일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교수가 직접 회사로 찾아와 강의를 해준다. 현재 15명 가량 수학중이며 직원들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

박해대 엔젤은 남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했다. 구직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뽑으려면 마땅한 사람이 없다. 대기업만 원하는 구직자들과 대기업처럼 대접해주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여건이 이 불균형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박해대 엔젤은 외부에서 인재를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인재를 키우자고 마음먹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기술을 잘 알고, 우리 회사에 애착이 있는 현장직원들을 공부시켜 키우자는 전략을 세웠다.
처음 직원교육을 시작할 때 많은 지인들이 말렸다. '공부시켜 놓으면 다 퇴사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는 "나갈 사람 나가도 회사에서 혜택 받고 성장해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더 성장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밀어붙였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아직은 퇴사자가 없고, 회사 분위기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이 일을 광고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외부에서 '미래테크 복지가 최고'라는 소리도 들린다.

박해대, 서순옥 엔젤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미래테크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자녀들에게 대구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대구FC 엔젤클럽'이 전무후무한 시민단체로 성장하게 된 이유를 이곳 아름다운 가족엔젤에게서 발견했다.

다이아몬드 엔젤
서한 조종수 대표

"대구FC엔젤이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대구의 분위기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 건설업계 수장이자 다이아몬드 엔젤인 (주)서한 조종수 대표는 "잠재력은 최강이지만 지역 경제사정이나 정치적 여건 등으로 인해 힘이 빠져 있던 대구를 살리는 분위기 메이커의 출발점이 대구FC엔젤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엔젤이 불을 붙인 건 단순히 축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사랑, 나아가 우리 대구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그 무엇을 위해 시민으로서 해야할 일이 뭔지를 일깨워줬다는 점"이라며 "그런 것들이 엔젤 숫자나 대구FC 성적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한은 기존에 해오던 대구FC구단 후원에서 진일보해 지난 4월 엔젤클럽과 후원협약을 맺었다. 조 대표 역시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자문위원까지 맡고 있다.
자연스레 지난 8월 K리그 클래식 27라운드 대구FC~상주 상무전에서 있었던 브랜드데이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날 회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가족들이 경기장에 많이 오셨다. 싸온 음식도 나눠먹고 힘차게 소리도 지르면서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든 것 같아 보기 좋았다"며 "실제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날렸고 재충전의 기회도 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한은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2천여명의 입장객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선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축구가 주는 '달콤한' 즐거움을 회사 가족들은 물론 시민과 함께 나눈 것이다.

조 대표는 '즐거운 축구'하면 지난해 마지막 경기인 상무전이 생각난다고 했다.
당시 ROTC 후배인 5군수지원사령관이 장병들과 함께 응원을 나왔는데 대구FC도 응원해야 하고 상무도 응원해야 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다며 선수들의 플레이 못지않게 응원에서 오는 짜릿한 기쁨도 크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한다.
그 후부터 경기장에 직접 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스마트폰 실시간 중계로 달래는 때가 많아졌다고 한다.
경기가 끝나면 조광래 감독에게 격려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고.

고등학교 때 체육시간, 군대시절 축구 등이 사실상 축구와의 인연이 전부였지만 다이아몬드엔젤까지 된 지금은 지원 금액의 경중을 떠나 축구에 대한 관심, 특히 대구FC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도 놀란다고 했다.
그런 맥락에서 조 대표는 대구FC 선수들은 성적을 떠나 엔젤들과 시민들이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기를 펼쳤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특히 '엔젤'이 축구 뿐 아니라 야구 아니 지역의 다른 운동 종목에도 만들어져 스포츠를 통한 애향심이 자연스럽게 키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스포츠로 인한 참여의식은 결국 개인의 기쁨이 되고 개인의 기쁨이 이웃으로 퍼져나가면 지역 분위기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런 시너지효과야말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역사랑에너지의 재활용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지역 대표기업들과 대구FC구단과의 새로운 전략적 공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구시와 지역 대표기업들의 후원이 대구FC를 이끌어가는 전부였다면 이젠 대구FC엔젤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하나 더 생겼다"라며 "앞으로 대구FC엔젤은 대구FC를 살뜰히 챙기는 울타리가 되고 지역 대표기업들은 축구단으로서 대구FC를 이끌어가는 선수들 유치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사실 지금 시민구단으로서의 지원만으로는 대구FC 성적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 전북 현대나 수원 삼성처럼 큰 기업이 뒤를 받쳐주는 구단과 경쟁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우수한 선수 확보이며 이는 곧 자금력의 확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지역 기업들이 펀딩을 해 선수 유치를 하고 나중에 이적을 하게 되면 구단과 수익을 일정 부분 나눠 갖는 방식 도입을 생각해 볼 때"라며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동만 된다면 대구FC의 선수층이 지금보다 훨씬 탄탄해져 성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축구를 보는 재미가 배가된다는 전용경기장 건립에 권영진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나선다고 하니 대구FC 팬들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내친 김에 수영장, 골프장 등 다양한 종목에 대구시민을 위한 전용구장이 건립돼 시민들에겐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과 애향심 함양을, 지역기업들에겐 구장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았으면 좋겠다"고 건설업계 수장다운 포부로 말을 맺었다.

▲ 올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조감도. 서한은 올해 전국 도급순위 50위권 진입이란 쾌거와 함께 하는 사업마다 거침이 없었다.

NCO 1호, 열정 1호
김동수 엔젤

어떤 분야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산증인'이라고 한다. 대구FC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산증인도 있다. 바로 1호 NCO(Angel + Barcelona Socio) 김동수 엔젤이다.
김동수 엔젤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이 탄생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 대구FC를 응원하고 있다. 대구FC의 창단 과정은 물론 수원삼성과의 첫 경기까지 직접 두 눈으로 본 대구FC의 산증인이자 골수팬이다.

김동수 엔젤은 대구FC 서포터즈 '낭띠'의 소모임인 'BM(블루 마스터)'에 속해 있다가 BM회원들 중 가장 연륜이 있어 1호 NCO를 권유 받았다고 한다. 김동수 엔젤이 말하길 NCO는 대구FC를 응원하는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는 순수 자발적인 모임이다. NCO끼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구속력이 없어 자유롭다. 오직 대구FC를 응원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나가 되어 모인 사람들, 그게 바로 NCO라는 것이다.

"제주도 빼고 다 갔습니다. 제주도는 가는 게 어렵더라고. 비행기 표를 못 구해. 허허"
김동수 엔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안 가본 구장이 없다고. 큰 행사나 중요한 볼 일이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모든 경기를 보러 다닌다고 했다. 특히 김동수 엔젤은 가족 모두가 열정적인 축구 팬이다. 원정 경기를 갈 때면 가족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원정 지역의 맛집, 명소를 찾아다니며 가족과의 시간을 함께 즐긴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원정 관람을 적극 추천했다.

"원정석에 앉아있으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선수들 넘어지고 다치고…. 전반전 뛰고 나오는 선수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요, 숨을 못 쉬어요. 가서 직접 느껴보시면 진짜 다릅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10년 이상 느꼈기 때문에…. "
경기 당시의 벅참과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지 김동수 엔젤은 인터뷰 내내 상기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축구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마치 반짝이는 눈을 가진 소년 같았다. 그는 축구에 대한 열정과 조예가 누구보다 대단한데도 자신은 깊이 있게 축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며 연신 자신을 낮췄다. 그저 축구에서 느끼는 감동이 좋을 뿐이라고만 했다.

김동수 엔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캐논슈터 노상래(현 전남감독) 감독의 은퇴경기를 꼽았다. 노상래 감독의 은퇴식을 직접 준비하고 커다란 액자에 유니폼을 넣어 선물하기도 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은퇴 경기 후 노상래 감독이 경기장 한 가운데에서 큰 절을 했던 모습이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다고 한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경기를 마치고 노상래 감독이 관중들을 향해 큰 절을 했을 때 김동수 엔젤뿐만 아니라 모든 관중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했다.

프로축구와 대구FC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프로축구가 발전을 해야 우리 축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며 프로축구 관중이 적은 것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했다. 자신은 대구에 프로축구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고 대구FC는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까지 했다. 더불어 대구FC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수를 계속해서 들이는 것 보다는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랜 대구FC의 팬으로서 엔젤클럽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순수한 목적의 후원 단체인 엔젤클럽이 생겨나면서 엔젤클럽 활동이 대구시민 대구사랑 운동으로까지 커질 것이라며 기대를 했다. 엔젤클럽이 탄생했다는 자체가 앞으로 대구의 축구 인프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이다.

1호 NCO 김동수 엔젤은 축구가 좋아 축구장을 가고 경기장에서 느끼는 감동이 좋아 계속해서 구장을 찾는다. 선수들이 땀 흘리며 뛰는 모습을 보다보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뛰는 것뿐만 아니라 관중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 대구를 위해 뛴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대구FC는 순수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구단인 만큼 시민구단의 가치는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장을 찾는 한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동수 엔젤은 처음 응원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선수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NCO회원은 대구시민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NCO란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대구FC를 위해 선수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은 NCO입니다. 대구FC가 클래식에 잔류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김밥천사
김 미 숙 엔젤

경기장 응원을 좀 나와 본 엔젤들은 다 안다. 대구FC엔젤클럽에는 승리를 부르는 '미숙표 김밥'이 있다. 대구FC 초반부진으로 모든 엔젤들과 팬들이 애태우던 그때, 엔젤미팅룸에 김밥 박스가 등장했다.
청량고추가 알싸하게 들어가 홉사 마약같이 끌어당기는 맛에 모두가 매료됐다.
'뭐야? 이거 어느 김밥집이야?' '맵싸~한 것이 묘~하게 맛있네~'. 회원들은 '어디어디? 나도 먹어보자!'며 모여들었고, 김밥 50줄이 이내 동이 났다.
이것이 어느 유명한 김밥집의 김밥이 아니라, 김미숙 엔젤이 집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한 줄 한 줄 정성으로 싼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김밥의 매운맛이 경기장에서도 통했을까? 4월의 마지막 주말, 대구는 강팀 서울을 상대로 2대1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다.

5월말 상주와의 경기에서 2대0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7월, 무려 8경기 째 승리를 맛보지 못하다가 포항에 3대0의 대승을 거둘 때도 승리의 '미숙표'김밥이 함께 매운맛을 보여주었다.
사업상 업무로 경기장에 나오지 못할 때는 계란을 20판씩 삶아서 엔젤미팅룸으로 갖다 주기도 했다.

이 같은 김미숙 엔젤의 봉사에 감명 받은 다른 엔젤들이 수박화채를 100인분 준비하기도 하고 과일이며 통닭을 준비해오기 시작했다. 또 포항에서 회를 공수해오는 엔젤들도 생겨나 홈경기 날 엔젤미팅룸은 만남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파티장이 되었다.
아이 소풍간다고 김밥 서너 줄 싸는 것도 엄두가 안날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김밥 50줄, 100줄을 혼자서 싸온단 말인가? 너무 궁금하여 홈경기 날에 경기시작 2시간 전쯤 김미숙 엔젤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집이 아니라 회사에서 김밥을 싸고 있단다. 찾아가보니 김밥을 싸고 있는 주방은 홉사 전문 식당 주방을 방불케 했다.
대형 가스버너에 대형 밥솥, 요리대…. 엔젤클럽에 김밥을 싸오기 위해 이 시설을 준비했단 말인가. '엄청난'시설에 눈이 동그래지자 김미숙 엔젤은 수줍은 듯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김미숙 엔젤은 오래 전부터 엄마 없는 아이들에게 반찬을 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다. 본인이 어린 시절, 매일 일터에 나가고 없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들 밥 챙겨 먹이고 집안일을 돌보던 기억이 나서, 엄마 없는 아이들에게 반찬이라도 해다 주고 싶어서 시작했단다.
돈이 많아서도,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다. 너무 바쁘고 어렵지만 조금씩만 나누면 어려운 아이들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설비사업을 하는 한 지인이 김미숙 엔젤의 이런 마음을 알고 사무실에 주방시설을 무료로 해주었단다.

김미숙 엔젤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반찬을 준비할 때 가장 행복하단다. 그 어려운 아이들이 함박웃음으로 자신을 맞이할 때는 가슴 아픈 행복감이 밀려온다. 그녀가 엔젤이 아니면 누가 엔젤일까? 김미숙 엔젤은 보건전문대 최고위과정을 함께하던 엄태건 엔젤에게 대구FC엔젤클럽의 취지에 대해서 들었다. 직접적으로 가입을 권유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도 할게요!'했단다.
어려웠던 가정형편 때문에 시도도 못해봤지만, 그녀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는 활동녀다. 그녀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젊은이가 꿈을 향해 뛰는 동안 누군가의 후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힘 이 되는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구FC 선수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고 싶어서 무턱대고 하겠다고 했단다.

그녀는 100만원의 후원금을 3개월 할부로 카드결제 했다. 후원이나 기부는 먹고 살만한, 적어도 쓸 만큼 벌고 남는 사람들이 하는 사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김미숙 엔젤을 통해, 대구FC엔젤클럽이 어떻게 이렇게 일파만파 빠른 시일에 확장 되어가는지 그 힘을 본다.

"그냥 저는 조용히 김밥 쌀게요~". 매거진 기사를 부담스러워했던 그녀는, 스플릿 경기에서 클래식 잔류의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매운 맛을 보여주겠단다.
내년 경기에 우리는 어떤 매운 맛으로 상대팀을 압도하며 상위 스플릿을 향한 질주를 할까? 미숙엔젤~ 기대합니다~.

Angel Club

열혈 커플엔젤

열혈 커플
김동규 엔젤

2015년 8월 23일. 김동규 엔젤 커플이 처음으로 함께 경기관람을 한 날이다. 동시에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대구FC가 승리한 날이다. 이 커플의 첫 관람은 그렇게 승리로 시작을 했다.

'열혈까지는 아니구요, 그냥 대구가 좋고 대구FC를 응원하는 순수한 팬입니다. 하하'
김동규 엔젤은 대구FC가 창단할 때부터 시민구단이라는 지역소속감과 의무감으로 16년 정도 꾸준히 대구FC를 응원해 온 열혈 팬이다. 후원금이 부담되어 망설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대구FC라는 구단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 구단사무국으로 직접 찾아가 엔젤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엔젤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가끔 할 만큼 엔젤활동에 대한 성취감이 대단하다고 한다.

김동규 엔젤이 대구FC의 열혈 팬인 반면 김동규 엔젤의 짝지는 호날두와 메시를 좋아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챙겨보는 축구팬이었다. 그러다 김동규 엔젤이 대구 축구에 열광하는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함께 대구FC의 경기를 보러 간 것이 시작이었다. 이제는 커플이 함께 대구FC의 팬이 됐고 커플의 일상이 대구축구가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거의 매주, 매 경기마다 관람을 나갈 만큼 이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대구FC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면 제주도까지 날아가기도 한다. 이들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동계훈련 원정경기에 꼭 가보고 싶다고도 했다.

이들은 원정 경기 관람을 거듭 추천했다. 홈경기 보다는 적은 응원단이지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대구를 외치고 선수들을 격려할 때 느껴지는 감동이 있다며 원정경기만의 묘미를 꼭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커플이 함께 원정 응원을 다니다 보면 예상 못한 에피소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들에게도 그런 일화가 있었다. 지난 6월 21일 서울 원정경기 날이었다. 이들 커플은 경기가 끝난 후 KTX를 타기 위해 급하게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대구FC 선수들도 서울역에서 KTX를 타기위해 대기 중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러 선수들과 같은 열차를 타고 내려간다는 생각에 잠시 들떴지만 선수단은 이들과 같은 열차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열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이번에는 대구FC 조광래 사장님이 옆자리에 앉아있었다. 이들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조심스레 인사를 했고 조광래 사장님과 함께 대구에 내려왔다. 기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빠져나오기 전에 조광래 사장님이 "매번 이렇게 멀리 응원 와주시는데 언제 식사라도 합시다"라며 명함을 건네줬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식사는 같이하지 못했다고….

끝으로 대구FC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김동규 엔젤은 지금까지처럼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며 진심으로 선수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구단을 위해 애쓰시는 엔젤클럽의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을 포함하여 모든 운영위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구FC가 K리그의 명문구단을 넘어서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명문구단으로 거듭나는 날까지 모든 엔젤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 커플의 첫 관람이 승리로 시작했듯 앞으로도 이들이 함께하는 모든 경기가 승리, 열정, 그리고 감동으로 가득차길 바라며 이 커플의 대구FC에 대한 열정도 계속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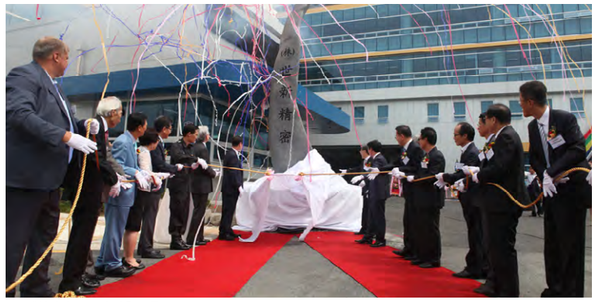
Angel Club

㈜세신정밀

㈜세신정밀
이 중 호 대표

"아직은 좀 덥지요?"
초가을이라고는 하지만 밖의 기온은 여전히 28도를 오르내리던 9월 하순.
큰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의 이중호 사장은 기대했던(?) 에어컨 대신 냉풍기를 틀면서 겸연쩍어했다. 몸에 밴 근검절약 정신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원칙은 지키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잊지 않는다는 인상을 갖기에 충분했다.

지역에서 장인이 대를 잇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인 ㈜세신정밀.
1976년 부친인 이익재 회장이 문을 연 뒤 어릴 때 옆에서 일을 돕던 꼬마가 40여년이 지난 지금 사장이 되었다.
성서5차산업단지 내에 메인 공장이 있는 세신정밀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용 감속엔진을 주 생산품으로 2016년 기준으로 임직원 141명에 매출 308억원을 기록한 '강소기업'이다.
이 사장은 설립기, 성장기, 도약기를 거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립기는 76년 회사 설립 후 82년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고 98년에는 덴탈업계 최초로 식약청 공인 의료기기 품질관리 적합인정을 받는 시기였다.
2000년 7월 수출 유망 중소기업지정을 기점으로 시작된 성장기는 그해 100만 달러 수출탑 수상, 200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2007년 대구 3030 향토기업 선정, 2008년 대구시 스타기업선정에까지를 말한다.


▲ 세신정밀 2012신 사옥 오픈

▲ 세신정밀 2012 신 사옥

▲ 세신정밀 2014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선정

▲ 세신정밀 39주년 기념식

2009년부터 시작된 도약기는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012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2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2013년엔 글로벌 전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14년엔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뽑혔다.
2016년엔 대구시 스타기업 100에 지정됐고 올해 4월엔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사업, 7월엔 대구시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각각 지정됐다.
매출을 들여다 봤다. 지난해 기준으로 내수가 32억5천만원, 수출이 275억7천3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수출이 압도적(89%)으로 많다.
매출의 11%에 이르는 내수이긴 하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라서 세신의 힘을 느끼게 한다. 특히 국내 고가시장을 주도했던 독일과 일본제품이 세신정밀제품의 매출 증가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내 의료계나 관련업계의 어깨도 가볍게 해줬다는 점은 매출 1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런 안팎의 선전으로 2009년 140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308억원으로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출은 세계 120여개국에 하고 있으며 아시아 · 오세아니아지역이 39%로 가장 많다. 미주 23%, 유럽 21%, 아프리카 및 중·근동 12%가 뒤를 잇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15년 16회, 지난해 22회 참가에 이어 올해 24회 참가가 예상된다.
제품은 마이크로 모터 핸드피스 유닛으로 브러쉬리스 모터 외 13종이다. 비중은 치과시술용 40%, 치과기공용 30%, 네일아트 20% 정도다.
계량화된 수치와 그동안 수상실적만 봐도 탄탄한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자 이 사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치레 대신 '내실 있다'는 소리를 듣는 문자 그대로 강소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힘은 임직원들로부터 나오는 것인 만큼 "아플 때까지 다니세요"라고 말한다는 이 사장은 오랫동안 회사와 함께 하는 직원이 많도록 하는 게 회사의 중요한 경영방침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2009년 63명이었던 상시종업원이 지난해는 141명까지 늘었다.
오래 머무는 회사가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대우가 좋은 건 물론 쾌적한 근무 환경도 한몫하고 있다. 2012년 154억5천만원을 들여서 완공한 중소기업 최초 친환경 지열시스템으로 시공된 지금의 사옥이 바로 그것이다. 고용친화대표기업 지정이 저절로 된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세신정밀의 가장 돋보이는 점 중 하나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듯이 도제교육의 산실이란 점이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육훈련임을 인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개인별 전문지식 배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품질재단,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사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사예정자,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도제 및 일·학습 병행제를 운영하고 있다. 훈련은 CNC 및 연마 정밀가공, 기계기어 및 모터 정밀조립, 기계 설계 등이다. 훈련기간은 12개월 이상으로 고숙련 근로자의 핵심기술을 도제 및 일·학습 병행제 운영을 통해 후계 근로자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중호 사장은 "첨단의료산업단지 내에 지난 9월 25일 문을 연 연구소를 기반 삼아 치의료기기에서 나아가 의료기기 전반으로 품목 다변화에 힘쓸 계획"이라며 "설비만 갖춘다고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점에서 오랫동안 손잡고 일해 온 협력업체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한 시간보다 함께 할 시간이 더 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Angel Club

KOG

KOG
이종원 대표

이렇게 대단한 게임을 만들어내는 KOG의 이종원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이종원 대표의 첫 마디는 "차는 뭐로 드릴까요?"였다. 이종원 대표는 익숙하다는 듯이 페퍼민트 차를 직접 타 왔다. 직원 250여 명을 둔 회사 대표의 권위적인 모습을 상상했었지만 이종원 대표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손수 차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아주었다.

KOG에서는 불필요한 상하관계가 없다. KOG라는 이름은 '톱니바퀴'라는 뜻의 'Cog'에서 따왔다고 한다. 톱니바퀴는 작은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맞물려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종원 대표는 사람과 사람, 직원과 직원 사이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KOG의 직원들은 모두 KOG를 구성하는 작은 톱니바퀴다. 톱니바퀴들 사이에는 권위의식, 수직관계란 없다. 톱니바퀴처럼 모두 나란히, 수평적 관계를 가진다. 이종원 대표도 마찬가지다.

KOG는 2000년 5월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는 대구의 대표 게임회사다. KOG는 지금까지 대표작인 엘소드와 그랜드 체이스, 그 외에 얼티밋 레이스, 아이마, 히어로 등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했다. 특히 KOG의 대표작인 엘소드는 10년간 전 세계 20개국에서 서비스될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이다. 최근 엘소드 모바일 버전을 출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또다른 대표작인 그랜드 체이스는 최초의 PC 온라인 대전 게임으로 2003년 출시되어 2015년까지 12년 간 서비스되었다. 현재는 모바일 버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랜드 체이스 또한 2009년 이후 브라질 게임 3년 연속 1위, 2011년 인도네시아 최고 인기 온라인 게임상 수상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종원 대표는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했다. 평소 게임을 좋아하기도 했던 그는 자신이 잘하는 전공을 살려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KOG다. 이종원 대표는 지금도 게임을 즐겨한다고 했다. 요즘 즐겨하는 게임은 그랜드 체이스, KOG사의 게임이다. 본인이 직접 만든 게임을 유저가 되어 플레이하면 어떤 기분이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는 듯 '재밌다'고 답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제작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게임 자체의 재미에 빠져든다고 한다. 물론 자사가 만든 게임의 '재미'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게임 회사인 만큼 이종원 대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게임에 대한 애정도 대단하다. 가끔은 자사 게임으로 사내 게임 대회도 개최할 만큼 모두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이 주는 재미를 즐긴다.

KOG가 게임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미'다. 스토리, 아트 모두 중요하지만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만다. 그래서 KOG는 무엇보다 재미를 중요시 한다. 이종원 대표는 재미라는 부분에서 게임과 대구FC의 공통점을 얘기했다. 게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듯이 대구FC의 축구는 대구 시민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 이종원 대표는 같은 재미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구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대구FC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 엔젤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종원 대표는 항상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회장님, 그리고 많은 엔젤 분들이 계시기에 대구FC가 더욱 발전할 것이고 그로 인해 대구FC의 축구를 보는 대구 시민들이 더욱 즐거워 질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엔젤 분들이 앞으로도 열정적인 응원과 후원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게임이미지(엘소드)

▲ 게임이미지(그랜드체이스 for kakao)

▲ KOG 본사

▲ 해외법인(필리핀법인)

▲ 해외법인(미국법인)

엔젤과 손잡은 대학 1.대구보건대학교

최첨단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WCC 대구보건대학교

올해 개교 46주년을 맞은 대구보건대학교(총장 남성희)는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 : World Class College)에 선정되는 등 국내 최고의 보건특성화대학으로 인정받았다.

보건대는 46년간 국내 최고의 보건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한 것을 바탕으로 대학병원과 연계한 보건통합교육과 세계의 유수한 대학과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을 완성하고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두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 WCC 선정 등 관계기관 최고 평가

대구보건대는 최근 교육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대가 올해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영남지역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WCC대학에 선정된 것이다. WCC는 교육부가 직업교육 분야의 국내 대표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의 교육환경과, 해외취업, 교육과정 수출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전문대 입장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인정받는 만큼 최고의 명예로 꼽힌다. WCC에 선정된 대구보건대는 자체 특성화 발전전략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 6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글로벌 명품 보건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건대는 올해 또, 대구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에 선정됐으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평가인증원으로부터 타 대학의 선도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명품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학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계속지원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13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으로 대학 특성화를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청년해외진출사업과 K-MOVE프로그램에 동시에 선정되면서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다. 대구보건대는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대학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2016년 12월 이 대학은 전국 3개 전문대학만 선정되는 교육부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우수대학에 지정됐다. 방사선과 박정규 교수는 교육부 2016 교수학습연구대회에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상을 받았다. 보건대는 앞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대회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교수학습 연구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여기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명의 교수가 같은 대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상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을 받았다. 보건대는 최근 9년 동안 전문대학 최고 교수 9명을 배출한 셈이다.

2015년 6월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을 획득했다. 또, 최근 8년간 보건의료 국가고시 10개 부문에서 전국 수석자를 배출 하고 임상시뮬레이션센터가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공인 심폐소생술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도 자랑거리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국심장협회 BLS Provider 간호사보수교육 기관에 선정됐으며 창업보육센터는 중기청 평가에서 2015년, 2014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유아교육과는 최근 교육양성기관 평가 A등급을 받았으며 소방안전관리과는 23년 연속 소방공무원 특채 지역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계획이다.

▲ 대구보건대학교 전경

♣ 최고의 교육환경과 최첨단 실습 시설

대구보건대는 교육환경도 전국 최고수준이다. 18년 전부터 꾸준히 'Green & Clean'캠퍼스를 조성한 결과 외부로부터 대학 캠퍼스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나 박물관 같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각 학과의 실습실과 기자재가 우수하다 보니 이 대학의 학과실습실 대부분이 국가고시 실기 시험장이나 국제시험 장소 각광받고 있다.

치위생과는 국가고시실기시험장, 간호학과는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공인 심폐소생술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보건환경과는 국가자격증시험장, 호텔외식산업학부는 바리스타와 소믈리에 시험장, 뷰티코디네이션과는 국제시데스코 시험장, 보건의료전산과는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디지털스튜디오, 멀티미디어실, 유-헬스 캠퍼스를 구축하고 최신시설의 학생생활관, 조각공원, 인당아트센터와 헬스메니지먼트 센터, 무료스쿨버스 운행 등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학업과 대학의 낭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대구 북구지역 최고의 공연장으로 꼽히는 인당아트홀도 이 대학의 자랑이다.

♣ 대졸 고학력자들이 다시 지원하는 학력 유턴 전국 대표 대학

대구보건대는 매년 지역에서 가장 수험생이 많이 몰리는 대학이다. 재학생 대부분이 전문직으로 취업할 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수험생들 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은 국내 보건계 대학 중에서 최고 전통을 자랑하며 보건교육의 노하우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전국에서 보건의료 전문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7만 4천명의 동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있다.

대구보건대 입학은 바로 '전문직업 보장'이라는 등식 때문인지 석 · 박사를 비롯한 대졸자가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력유턴 대표 대학이다. 2002학년도에 352명이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에는 780명, 2009년에는 833명이 지원하고 2010학년도에는 1천20명이 지원하는 등 해마다 대졸 지원자 수가 늘고 있다. 2017학년도 수시기간 동안에만 550명이 넘는 대졸자가 지원했다. 최근 9년간 대졸자 지원자 수는 6천600명을 넘었다.

♣ 최고의 글로벌 전문가 양성 !

보건대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고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세계적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근 해외인턴과 해외취업 프로그램, 해외견문단 · 해외취업 개척단프로그램 등을 대폭 강화했다. 매년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필리핀의 자매대학에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는 대학은 앞으로 파견 국가 및 대상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세계 10개국 대학생들이 참가한 글로벌인재양성 캠프와 태국 나레수안대학교 간호 연수를 무사히 마쳤으며 국내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대학협의회(AUAP) 국제학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국내 대학교의 위상을 높였다.

2014년 교육부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보건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청년해외진출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글로벌 전문가 양성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 사업에는 치기공, 간호, 호텔외식 분야가 참여하며 대상 국가는 독일, 일본, 미국, 호주 등이다. 우선 간호학과 학생 10명을 독일에 파견하여 독일 해외 취업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해외취업 다변화를 통해 전문대학생이 국제화를 선도하는데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바로 현실이 됐다. 2015년에만 치기공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간호학과, 호텔외식산업학부, 뷰티코디네이션학부 등 6개 학과에서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지에 36명이 취업했다. 2017년에도 42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대구보건대 남성희 총장은 "우리 대학은 단순한 기능인 양성이 아닌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구보건대만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통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보건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구보건대학교에서 열린 WCC대학 출범식 모습 ▼

⊙ 2017년 WCC 대학 출범식 개최

대구보건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주최로 2017년 WCC대학 출범식을 지난 9월19일 개최했다. 18개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서 출범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교육부 김영곤 대학지원국장, 최성부 전문대학정책과장, 백승민 한국연구재단 팀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과 전국 18개 WCC대학 총장 및 관계자 등 모두 2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최선언 및 국민의례, 참석 내빈소개 및 축사, 청렴서약 및 선언서 낭독, WCC동판수여식, 경과보고, WCC운영우수사례발표, WCC대학 동영상,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WCC 18개 대학 사업단장들이 2017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동판 수여식이었다. WCC대학에 신규 선정된 대구보건대학교 등 7개 대학이 교육부 김영곤 국장으로부터 동판을 건네받았고 기존 11개 대학총장들은 꽃다발을 받았다.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은 환영사에서 "WCC 대학들은 출범식을 계기로 전체전문대학에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전문대학의 강점을 살려 평생교육 분야 및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보건대학교에서 열린 AUAP 국제학회

▲ 대구보건대학교 학생과 남성희 총장

▲ 학과 실습모습

대구FC구단주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다

"학교 수업을 빼먹고 서울까지 축구부 응원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젠 대구FC 구단주가 돼 축구와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으니, 전생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을까요? "

대구FC구단주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구와의 인연을 얘기하며 환하게 웃었다.

웃음 속엔 올해 대구FC가 8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클래식리그에 잔류하게 된 데 대한 유쾌함도 포함된 것 같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대구FC가 클래식리그에 우수한 성적으로 잔류하게 됐는데.

A 대구시장, 대구FC 구단주이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축구 마니아이자 대구FC의 열성팬이란 점에서 기쁘고 행복하다. 먼저 그라운드를 힘차게 달려준 선수들과 안드레 감독 그리고 조광래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특히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해준 엔젤클럽 회원들, 목이 터져라 응원해 준 12번째 선수인 그라지에 회원들,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후원사 여러분을 비롯해 승리를 염원해 준 250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1월 4일, 2018년 클래식 잔류가 확정된 순간 지난 해 클래식으로 승격될 때와는 또 다른 뜨거운 감동이 가슴에 솟구치며 '할 수 있다! 우리 대구는 하면 할 수 있다!'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밀려왔던 기억이 난다.

차제에 조광래 단장님의 목표와 같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힘차게 뛰어 내년에는 상위 스플릿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Q 시민서포터즈인 대구FC엔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A 엔젤클럽은 우리 대구의 소중한 정신인 국채보상운동의 맥을 이어받아 시티즌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스포츠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후원단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랑, 축구사랑에다 동지애로 끈끈하게 무장한 엔젤클럽회원들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대구FC를 다시 클래식에서 뛰게 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여러모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엔젤클럽이 있었기에 2018년에도 클래식 리그에서 골대를 향해 돌진하는 대구FC를 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엔젤클럽은 국채보상운동의 계보를 이어가며 대구를 대표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임을 자신한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확정되면서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었는데, 전국 최초 대구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나라를 구한 국채보상운동처럼 엔젤클럽 또한 다른 시·도의 본보기가 되어 지역을 빛내줄 것이라 생각한다.

Q 시민과 대구FC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대구FC는 전국최초로 시민들이 만든 시민구단인 만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단이 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 지역고등학교 축구부 지원, 각종 축구대회 개최, 교육청과 연계한 지역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대구FC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축구대표팀 선발골키퍼로 세르비아 평가전에서 프리킥을 멋지게 막아내면서 국민의 환호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선수는 우리 대구FC의 자랑스러운 거미손 조현우 선수다. 이처럼 스타선수의 탄생은 지역 프로축구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축구팬을 축구장으로 이끌게 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 지역프로축구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구FC가 유소년꿈나무 등 지역 선수를 육성하고 스타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대구시민은 물론 전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대구 축구전용구장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A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을 축구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하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및 프로축구 재도약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49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당초 계획대로 2018년 12월에 준공예정이다.

만에 하나 국비 확보가 어렵다 하더라도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시즌에는 대구FC 전용축구장에서 힘차게 달리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Q 구단주로서 선수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 대구FC는 존재할 수 없다.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엔젤클럽을 비롯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없었다면 클래식 8위의 자랑스러운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

구단주로서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언제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선수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뭐든 맘먹고 노력하면 가능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발판으로 내일은 더 높이 도약하여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대구의 자랑이 되어주길 바란다.

1004명 해냈다!!

갈 길은 더 멀다

엔젤클럽의 1차 목표인 회원 1,004명 달성이 눈앞에 와있다. 사실은 "할 수 있을까"반신반의했던 일이었다. 2017년 11월초 현재 970여명이므로 30여명의 추가 영입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꿈만 같고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대가없이 매년 10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시민 1,004명을 모으는 일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초창기에 누군가는 "그거 되겠나?"하며 김을 뺐다. 1,004명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누군가는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털어 놓는다.
1,004명의 의미는 이렇다. 엔젤활동 초창기 대구FC를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었을 때 마땅한 모임이름이 없었으나 한두명씩 회원이 늘어가던 2015년 여름 무렵 대구FC의 조광래 사장은 회원들을 '엔젤'이라고 이름지어 주었다. 이후 2017년7월25일 15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엔젤클럽을 결성하였고 11월4일에는 "명문자립구단 대구FC"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전용구장이 건립되는 2018년 말까지 엔젤회원 1,004명을 달성한다는 1차 목표를 정하였다.

엔젤클럽은 "시민구단인 대구FC를 시민의 힘으로 성공시켜보자"는 취지로 만든 순수한 민간단체이다. 대구FC는 2002년 전국 최초의 시민구단으로 출범하였으나 실패한 구단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급기야 2011년 2부 리그로 강등되었다. 관중이라야 선수 가족들과 구단 관계자 수백명이 고작이었다. 뛰는 선수들은 사명감이 있을 리 없었다. 지역에는 대구FC를 운영할 큰 기업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대구시와 대구은행이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시민구단인 대구FC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대구FC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였다.
필자는 2010년9월부터 2014년6월까지 대구시 감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정 현안에 대하여 여러 민간분야와 의논을 자주 했었다. 대구FC의 흥행문제와 재정문제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 과정에서 이호경회장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었다. 대구FC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다단계 방식'으로 이끌어 내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때가 2013년 말경이었다. 이후 2015년1월 필자와 이호경회장 그리고 배성혁(현재 성우기획 대표, 뮤지컬축제 조직위원장) 세 명이 발기모임을 가져 대구FC를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엔젤운동은 구단과 선수들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작년 1부 리그로 승격한 것과 2017년 시즌 12개 팀 중 8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엔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대구의 엔젤클럽은 한국 프로축구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타 구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엔젤운동을 '시티즌 오블리주'의 모범사례라고 말한다. 과거의 '노블레서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 비하여 현대사회는 '시티즌 오블리주'즉, 시민의 책무가 요구되는 사회이다. 행정이나 정치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를 시민의 참여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구에서 엔젤운동이 성공해가는 이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주된 이유는 시민의 참여정신인 것 같다. 우리 스스로도 대구사회를 폐쇄적이고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엔젤운동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타 구단에서도 대구의 엔젤클럽과 같은 단체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구사회에는 명분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남다른 참여정신이 있음이 분명하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IMF때 금모으기 운동이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클럽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도 일조한 것 같다. 엔젤회원이 내는 후원금은 한푼도 빠짐없이 전액 대구FC로 들어간다. 클럽의 각종 행사비용과 사무국운영비 등은 운영이사들이 내는 분담금과 뜻있는 몇 분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클럽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을 더 높여주었다. 이호경회장의 열정과 추진력이 엔젤확산의 원동력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엔젤 1,004명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보람은 잠시다. 벌써 더 큰 짐이 어깨를 누른다. "명문자립구단"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기에 그렇다. 대구FC가 명문자립구단이 되려면 재정과 흥행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 당장 전용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2019 시즌부터는 관중석이 꽉 메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0명 이상의 엔젤과 10,000명 이상의 엔시오(연간 20만원 후원금 내는 엔젤)를 확보하여야 한다. 엔젤회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다.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엔젤운동에 참여한 위대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가치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엔젤 스스로가 느끼는 작은 보람만으로는 지금의 참여정신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한다. 엔젤클럽은 이 숙제를 푸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마침 대구시에서도 전용구장 내에 엔젤의 발자취를 담을 '엔젤 명예의전당'을 만들고 주변의 공원을 '엔젤동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엔젤의 정신과 가치를 후대에 남길 계획이다. 엔젤클럽은 명예의 전당에 엔젤회원을 브론즈명패, 실버명패, 골드명패로 구분하여 역사에 남길 준비를 하고 있다.

1차 목표 1,004명 달성의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엔젤운동 제2라운드의 링에 오른다. 열정적으로 엔젤운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강병규 엔젤

동성아트홀과 대구FC,
대구시민의 힘으로

2016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바 있는 '스포트라이트', 2015년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디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가족애를 잔잔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2017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한 '시인의 사랑'… 등과 같은 영화를 대구에서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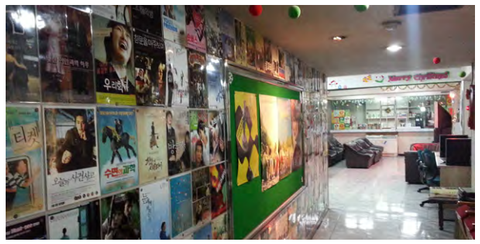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아니다. 중구 교동시장 먹자골목 바로 맞은 편 건물 3층에 있는 '동성아트홀'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른 바 '예술독립영화 전용관'이라고 불리는 동성아트홀이다. 흥행과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다양한 영화적 주제와 소재를 가진 예술독립영화들을 대구시민들에게 소개하면서,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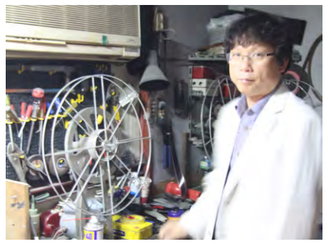
대구에 동성아트홀이 없다면 유럽, 인도, 동아시아 영화를 보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예술영화관을 찾아 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아트홀은 대구문화의 다양성, 예술성의 척도, 대구 문화 예술의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대구문화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존재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인디문화들이 그렇듯이 대구시민의 선택에서는 비껴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동성아트홀은 2004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2천여 편의 영화를 상영해왔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관 운영지원에 의존해서 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다 2014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적자운영을 견디지 못하고 폐관이 되었던 적도 있었다.
우연찮은 기회에 동성아트홀을 인수하여 재개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대구시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소외된 작은 영화관이었고 현재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시민의 자발적인 발걸음과 소중한 후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마냥 관 주도의 지원 사업에 의존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는 없었다.

각성된 자발적인 시민 후원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대구에서 야구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는 프로축구구단 대구FC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대구FC는 재정이 열악한 시민구단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 만년 하위 팀에 머물렀고, 대구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아온 구단이었다.
구단주인 대구시로부터 재정지원도 삭감되어 선수구성에 여력이 없었기에 전력보강은커녕 유지조차도 어려운 현실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시민구단이었다.

그러나,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스타 플레이어'조광래 단장이 취임을 한 이후 미세한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더불어 축구를 사랑하는 권영진 시장의 취임이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상승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변화는 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축구를 사랑하고 나아가 대구를 더 사랑하는 중년남성들이 모여서 일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구단의 취지 그대로 자발적인 대구FC후원모임의 탄생 말이다.
후원도 릴레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신선함과 긴장감을 높여나가며 대구 시민사회에 파장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메시가 활약하고 있는 FCB 즉 FC 바로셀로나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는가, 대구 FC의 롤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FCB가 만들어질 때처럼 대구 FC의 자발적 후원그룹이라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대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구 시민의 발걸음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자발적 시민후원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온 예술독립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을 맡고 있는 대표라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불붙고 있는 릴레이후원의 전개와 운영 열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싶었다. 자발적 후원그룹인 엔젤클럽이 성공하기를 바랐고 이러한 열기가 대구시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공간으로서의 외로이 존재하는 동성아트홀의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지면서 말이다.

이러한 지역 예술영화관에 공공지원이나 시민의 경제적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들을 상영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멀티플렉스가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지금, 지원의 필요성은 희석될 것이다. 대기업 멀티플렉스는 지역자발의 문화는 도외시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윤을 서울에 위치한 본사로 가져간다. 그래서 지역에 경제적·문화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다. 물론,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보조금으로 문화나 스포츠 분야를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거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을 통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 FC의 자발적 후원그룹인 엔젤클럽의 의의가 있는 것이며 여타의 프로축구 구단에서 본받아야 할 점일 것이다. 대구사랑으로 충만한 시민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더 빛을 발하여 이제 1004명의 엔젤그룹으로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올해 말 엔젤데이 행사를 통해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스스로 후원금을 내고 스스로 축구장을 찾아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뭉쳐진 엔젤클럽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통해 대구FC가 더 발전하리라고 믿는다. 또한, 높은 참여의식을 통하여 대구사랑과 발전을 희망하는 엔젤 회원들의 관심이, 영화의 불모지로 여겨지는 대구의 작은 예술영화관 동성아트홀을 지켜나가고 발전하는 데로 모여지기를 바래본다.
문화와 스포츠라는 한 분야에 대한 관심 이전에 대구라는 도시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는 엔젤회원, 그리고 대구시민들의 깊은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가 어려운 대구의 현실을 타개해 나갈 방안으로써 영화와 프로축구가 함께 발전하여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문화와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대구가 되는 날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희망을 품는다.
2018년 축구전용구장이 완공되어 박진감 넘치는 축구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꿈같은 대구시립 예술영화관이 건립되어 예술독립영화의 매력에 매료되는, 문화와 스포츠가 높은 수준으로 펼쳐지는 역동적인 대구를 희망한다. 엔젤클럽이 앞장서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김주성 엔젤

한 통의 편지

엔젤매거진-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

회장님, 잘 계십니까.

저는 대구FC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김용하입니다. 안경 쓰고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요. 엔젤과 관계된 유일한 사진은 안홍윤 엔젤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이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승격 확정되던 경기에서 넥타이 날리며 뛰던 모습을 찍어서 주셨는데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하답니다. 고백하자면 소극적인 제가 그때 그토록 열심히 산 것은 바로 엔젤회원님들과 맺은 인연 덕분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회장님에게 편지 쓰듯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엔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엔젤 매거진 창간호'를 보고 '깜짝'놀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엔젤'이란 추상적 개념이 '매거진'이란 구체적인 '실체'로 나온 것을 보니, 문득 그때가 떠올라 엔젤 출범 당시의 이야기를 슬쩍 털어놓을까 합니다.

2015년 경이었지요. 당시 구단은 2부 챌린지로 강등됐고, 그것도 중하위권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후원금도 줄어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패배 의식에 빠져있던 저로서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직장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1부 승격은 '글쎄요'였고, 후원금 유치는 '물음표'였습니다.

때문에 회장님을 비롯한 지금의 이사들님께서 당시 엔젤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였을 때만 해도 저는 관망하는 자세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좀 하다가 말겠지'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연간입장권 팔러 다녔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체로 표를 구입하더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 표에 무슨 가치나 의미,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시민구단이니까. 그래도 공공성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좋은 뜻을 갖고 후원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스스로도 시민구단에 대한 의미와 철학이 없으니 스스로 당당하지 못했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만원씩 그것도 자발적으로 릴레이 한다고?'는 물음표 그 자체였습니다. 적당히 엔젤회원을 위한 계획서, 가입서 등 서류 만들고, 대충 흉내만 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첫해 40명 정도의 회원에 그친 엔젤클럽은 2016년 초에 다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시 모였고, 정영준 엔젤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께서 수동적인 제 행동에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솔직히, 연초부터 기분 나쁠 만도 한데, 희한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엔젤의 분명한 철학과 가치를 알게 됐고,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다면 한다!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과장 좀 해서 '소명'이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정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부름을 받은 것인가'란 느낌 말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마자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행동이었는데 엔젤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루하루 회원님들이 늘어가고, 올해에는 우리 K리그가 들썩일 정도로 정말 믿기지 않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젤매거진'이라니요! '오! 마이 엔젤!!'

회장님, 주제 넘는 것 같지만 저는 엔젤활동을 지켜보면서, 이 엔젤이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회원님들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개념 후원', '시민책무', '스포테인먼트'등 가치 있는 삶과 스포츠를 즐기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젤'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낭만적인 사람'있잖아요. 자신의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하여 뜻있는 후원도 하고, 함께 나누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때로는 순수한 소년처럼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즐기고, 응원하고…. 그러면서도 가슴 한 쪽에는 싸한 흉터 하나 쯤 있을 것 같은 가슴 따뜻한 사람. 그래서 엔젤 가입 후 서로 좋은 기운 받아서 사업도 더 잘되고, 더 행복해지고, 재미있는 삶을 사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는 프로구단을 내 손으로 키워보는 의미 있는 인생!

아마도 전용구장이 건립되면 그곳에 엔젤의 이런 문화와 역사가 실제로 새겨져 많은 사람들이 그 엔젤의 가치를 이해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간하신 매거진이 그런 엔젤문화를 만드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엔젤의 철학, 삶, 추억, 즐거움 등등이 녹여져 있어 엔젤들을 연대하고 소통하게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엔젤 아닌분들도 "야! 이 사람들 정말 멋지게 사네!"라고 느끼면 좋겠지요. 그만큼 매거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매거진을 보면서 엔젤지원 업무를 맡았던 저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게 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곳곳에서 엔젤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제 입이 근질근질 해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TV에 유행하는 방송인 김생민의 유행어 처럼, 이제 엔젤 회원이 아니면 '스튜핏!'엔젤 회원이면 '그레잇!!'엔젤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자체를 즐기며 적극 활동하면 '슈퍼 울트라 그레잇!!!'이라고 우스개 소리 하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창간호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가독성 높은 매거진으로 자리 잡아, 우리 대구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김 용 하 올림

대구 건설의 힘을 보여준 서한,

브랜드데이 행사

2017년 대구FC는 도약의 해다. 승리의 해이며, 열정의 해다.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승격했으며, 승격 첫 해에 자력으로 잔류했다. 대구FC의 이같은 상승세 뒤에 물심양면 뛰는 '엔젤클럽'의 활약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엔젤클럽의 힘은 회원 1명이 1명이 아닌 것이다. 그들이 대구 경제를 이끄는 리더들인만큼 회원 1명에 수십 명에서 수백, 수천 명의 임직원들이 함께한다. 대구FC엔젤클럽의 열정과 힘이 상상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무렵, 대구FC는 13라운드까지 관중 증가세가 가장 많은 팀으로 연맹으로 부터 '플러스 스타디움'상을 수상했다.

시즌초반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구FC가 승리에 굶주려 있을 때 불볕더위를 마다않고 대구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서한, 태왕 임직원들이 '브랜드데이'행사를 가졌다.

저녁에도 30도가 넘는 삼복더위, 그것도 휴일에 진행된 브랜드데이 행사에 양사의 임직원들과 가족들, 협력업체까지 참석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

7월 12일, 태왕이 7경기 째 승리를 맛보지 못한 대구FC를 위해 울산전이 열리는 대구스타디움으로 모였다.

앞산 태왕아너스 분양으로 바쁜 와중이었지만 태왕의 임직원과 가족들, 협력업체 가족들이 운동장을 찾았다.

태왕은 보다 많은 시민을 경기장으로 초대하기 위해, 대구FC홈경기 관람권을 구입해 앞산 태왕아너스 모델하우스 방문객에게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태왕은 이 날 전 입장객에게 아이스크림을 증정했으며, 엔젤클럽 다이아몬드 회원인 노기원 대표이사가 이날 시축을 했다.

8월 20일에는 서한의 브랜드데이 행사가 이어졌다. K리그 클래식 27라운드 대구FC-상주상무전이 열린 대구스타디움은 여느 때와 달리 많은 관중들로 북적댔다.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단위의 응원단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서한은 이날 2000여명의 입장객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고, 선수단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서한 브랜드데이'를 맞아 엔젤클럽 다이아몬드 회원인 서한 조종수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 신입사원 대표가 함께 시축해 '함께'의 의미를 더하였으며, 서한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자녀들이 에스코트 키즈로 선수들과 함께 입장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의 사랑으로 전국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서한과 태왕은 브랜드데이를 통하여 지역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한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대구FC엔젤클럽이 단순한 대구FC후원단체를 넘어 대구사랑 시민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이다.

대학에서 본

엔젤클럽

홍덕률 엔젤

대구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대구FC엔젤로 인사드립니다

10월 12일 오후 5시. 대구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였습니다.
이호경 회장과 강병규 운영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귀한 손님들과 마주앉았습니다. 대구대학교와 대구FC엔젤클럽이 서로 협력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 평소 잘 알고 지낸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FC엔젤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저를 찾아준 것입니다.
'좋은 분들이 모여 좋은 일 하는 단체.'대구FC엔젤클럽에 대한 저의 첫 인상이고 첫 느낌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두 기관간 MOU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FC와 대구FC엔젤클럽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구FC와 대구FC엔젤클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민이 결성한 프로축구단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를 후원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사실 정도였습니다. 먼저 제 발로 축구공을 차 본 것이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축구와는 멀게 살아왔습니다. 축구경기를 관람한 것도 나라를 온통 들썩거리게 한 2002 월드컵 때 이후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은 축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안경을 쓴 이후로 운동을 끊고 살았습니다. 안경 쓰고 운동하다 안경 몇 개를 깨뜨린 후였습니다. 그 때는 안경도 매우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운동보다 안경을 택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대구 출신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황해도가 고향입니다. 한국전쟁 후 인천에 정착하셨습니다. 1988년 3월에 대구대학교 교수가 되어 경산과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꼭 30년을 경산과 대구에서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구의 중요한 일들에서는 변방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대구FC엔젤클럽의 가족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잠시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대구FC엔젤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구나."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엄연한 대구시민으로서 대구시민의 프로축구단을 당당하게 후원하고 그를 통해서 대구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의 대구FC엔젤클럽 엔젤데이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에도 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구축구를 주제로 대구시민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대구FC를 응원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살짝 흥분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민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FC엔젤로 초대해 준 이호경 대표와 임원진께 감사드립니다. 대구FC의 선배 엔젤 여러분께는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대구FC엔젤클럽의 따뜻한 활동을 통해 대구FC가 발전하고 대구FC의 발전을 계기로 대구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도 작은 역할이나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에서 본

엔젤클럽

대구MBC 보도국 석원 차장

체육출입기자 &스포츠PD

우리들 안에 "천사"가 있다?
축구단 곁에 "천사"가 있다!

'엔젤'이라는 어쩌면 너무 익숙한 단어를 축구단을 취재하며 보는 건 사실 매우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구FC를 언급할 때,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가 된 단어가 바로 '엔젤클럽'입니다. 어느덧 우리 K리그에서도 가장 독특하며, 가장 선진적인 팬들의 지지문화가 된 바로 그 '엔젤클럽'말이죠.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면서 어쩌면 가장 오랜 기간, 그 시작부터 거의 모든 중요한 '엔젤클럽'의 순간들을 취재하고, 제작해 왔던 입장에선 사실 우려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순수함을 가치로 내건 이 모임의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또 여러 다른 지지모임과의 갈등이 생기면 어쩔까 등과 같은 여러 고민과 의구심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임의 시간들을 계속 지켜보며, 또 팀의 힘겨운 순간들을 함께 하면서 든 확신은 이 모임은 진짜, '순수함'을 간직한 천사와도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팀 '대구FC'는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K리그 클래식에서 강등이라는 잔인한 단어와 함께 떠나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의 날들은 꿈처럼 여겨집니다만, 다시 이 무대로 돌아오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등과 함께 팀은 대표이사부터 각 팀을 꾸리던 부장들, 사무국장, 모두가 떠나야 했습니다. 2부 리그라는 냉혹한 현실과 함께 커진 모두의 무관심, 서포터즈들의 외침은 처연하게 울렸고, 쉽지 않은 도전으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조광래 대표이사가 오고, 팀의 조직이 하나 둘 갖춰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구FC의 주변과 내부는 어수선한 상황,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팀 대구FC와 함께 한 지지의 목소리가 바로 '엔젤클럽'이었습니다.
화려한 지금의 순간이 아닌, 2부리그에서 승격을 위해 몸부림치던 구단 곁에서 시작한 엔젤클럽, 한번의 실패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든든한 후원이 이어졌기에 지금 이 승격의 결과를 불러왔는지도 모릅니다.
서포터즈처럼 팀의 성적이나 현실과 무관한 지지의 목소리는 사실 시민구단에게 쉽지 않은 '사치' 일지도 모릅니다. 1부리그의 승격이 그래서 더 절실했던 시민구단, 대구FC에게 변함없는 응원의 양대 축은, 바로 서포터즈와 함께 '엔젤클럽'이었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지지의 끈끈함은 1부리그 승격이라는 결과와 클래식 무대를 뛰는 지금의 좋은 시간과 함께 더 크고 단단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억으로 돌이켜볼까요? 구단이 새로 도입된 판정 시스템(VAR)에 의해 억울한 입장에 놓였고, 이에 대한 분노가 모든 팬들에게 넘쳐나던 순간, 가장 적극적인 항변과 실질적인 도움을 같이 추진하고, 모두의 마음을 담아 나아가도록 노력한 분들은 바로 '엔젤클럽'과 '서포터즈'였습니다. 서로 다소 다름도 있지만 대구FC라는 구단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엔젤클럽'은 그 특성에 걸맞은 여러 모습들을 선보여, 중계 화면으로도 여러 차례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남겼습니다.
미디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입장인 '팬'들의 존재는 또한 이분들이 모두 '시청자'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2부리그에서도 승격을 눈앞에 둔 원정 경기에서 8%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였던 2년 전의 기억, 그리고 지난해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격의 순간을 함께 했던 경기장의 많았던 관중들, 올 시즌 새로 복귀한 클래식 무대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엔젤클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좋은 성적의 팀을 취재하고,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미디어 담당자에게, 팀 선수들만큼이나, 구단 직원들만큼이나, 고마운 존재인 우리 팀의 지지자들 그리고 그 든든한 축인 '엔젤클럽'. 부디 우리 팀의 승승장구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해주시길, 늘 즐거운 동반자로 같이 가길,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대구FC 크루가 본
엔젤클럽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열심히 경기해줘서 고맙다"
"대구 파이팅"-엔젤 응원석에서 들린 격려의 말씀

대구FC 크루 6기

엔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엔젤클럽 매거진 2017 vol2. 겨울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구FC 크루6기 콘텐츠팀 석문수입니다.)
2015년 대구FC 크루4기를 시작으로 올 시즌 크루6기에 이르기까지 크루로서 대구FC와 함께한 지 햇수로 3년이 되어갑니다. 열정 가득한 마음과 사진기 한 대로 대구와 함께한 시간은 대구FC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고 대구FC와 내 고향 대구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시즌 엔젤클럽에서 크루를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엔젤과 크루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래의 엔젤이 될 대구FC크루]

대구FC 크루는 지역 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 스포츠 산업 취업을 위한 역량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구단에서 마련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2012년 크루 1기를 시작으로 2017년 크루 6기까지 지속되며 명실상부한 지역 유일의 프로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크루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약 40명이 선발되어 한 시즌 동안 대구FC 홈경기, 구단 행사 지원 및 특강,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크루는 지원 분야에 따라 현장팀과 콘텐츠팀으로 나뉩니다. 현장팀은 홈경기 당일 이벤트, 스트레쳐, 미디어존 등 각자 맡은 구역에서 홈경기 운영을 보조하고 지역공헌 활동, 경기 홍보 등 구단 주최 프로그램에서도 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콘텐츠팀은 웹툰 제작, 경기 영상 및 사진 촬영, 선수 인터뷰 및 경기 취재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를 통해 프로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향후 사회에 진출하여 대구사랑과 축구사랑을 실천하는 크루 출신의 엔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뷰파인더로 바라본 엔젤클럽]

매 경기 열띤 응원은 대구의 자부심입니다.
2017시즌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결같이 대구스타디움 E석을 지키며 보여준 엔젤클럽의 함성은 대구FC를 위한 힘찬 응원이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에서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본 엔젤의 모습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올 시즌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승패를 뛰어넘는 격려의 박수"

한 시즌 동안 많은 경기를 치르다 보면 패배의 아픔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지난 5월, 전북과의 10ROUND에서 뷰파인더로 바라본 엔젤클럽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후반전 종료 휘슬과 함께 패배가 드리운 그때, 엔젤클럽 응원석에서 질책보다 열심히 싸워준 우리 선수들에게 보낸 격려의 박수는 제가 기억하는 올 시즌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입니다.
승패를 뛰어넘어 우리 팀을 응원한다는 것은 팀에 대한 크나큰 애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구를 응원해주시는 열정적인 엔젤 분들의 격려 덕분에 올 시즌 클래식에서 여타의 많은 우려를 잠재우며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올 시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돈 없는 부모 때문에 부잣집 아이에게 맞고 들어온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이다"

31ROUND 전북 원정에서의 VAR 판정 논란 이후 엔젤클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대구FC와 엔젤클럽은 구단과 스폰서의 관계를 뛰어넘는 부모-자식 간의 사이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정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항의하며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엔젤과 더 나아가 대구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고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 판독 오류에 관하여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놓친 승점을 되돌려 받을 순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구FC 뒤에는 든든한 엔젤클럽이 존재한다는 것을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FC를 응원하는 모두가 하나 되어 승격 첫해 경쟁팀들을 물리치고 클래식 잔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 시즌 상위 스플릿 진출을 목표로 하는 대구FC가 엔젤클럽의 힘을 받아 더 높이 비상하여 대구스타디움에 대구찬가가 울려 퍼지는 내년 시즌을 기대합니다.

Chagall's Village
샤갈의 마을

당신은 샤갈입니까?

일과 사랑 모두 성취한 현대미술의 별
그리운 고향의 꿈을 걸작에 담아낸 샤갈!
샤갈의 감성을 간직한 이 시대의 별에게
유럽에서 온 테라스하우스를 드립니다

유럽에서 온 테라스하우스
샤갈의 마을

대영에코건설(주)
053)741-0866

샤갈의 마을 | The Original Townhouse
근대 영국귀족들이 도심과 전원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 교외에 지은 집이 타운하우스이다. 샤갈의 마을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합친 한국형 타운하우스의 원본을 지향한다. 도시와 자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 나와 우리의 어울림을 통해 삶과 쉼의 균형을 이룬 신주거문화를 열어간다.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최상의 수익모델"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비전입니다.

대성그룹 대성에너지(주)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총점검의 날

새로운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대성그룹이 이끌어 갑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땅속과 하늘에서 물을 만드는 기술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Angel Club

2017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Histoy of Angel

2017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세신정밀 이익재 회장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 8월 20일

세신정밀 이익재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엔젤클럽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매년 1000만원을 후원하는 다이아몬드 엔젤에 가입했다.

대구FC VS 수원 9월 16일

대구FC VS 수원 경기에서 엔젤클럽 회원들이 대구FC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엔젤룸에 모였다. 엔젤클럽 회원들은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홈경기 응원을 펼쳤다.

대구FC 선수단에 격려차 방문 9월 27일

전북현대전 이후 힘들어하는 선수단을 위해 엔젤이사들이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대구FC를 방문했다. 연습 경기장을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수단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였다.

12차 스타기업 고용친화대표기업CEO 조찬포럼 9월 28일

12차 스타기업 고용친화대표기업CEO 조찬포럼에서 회장님의 조찬 엔젤 홍보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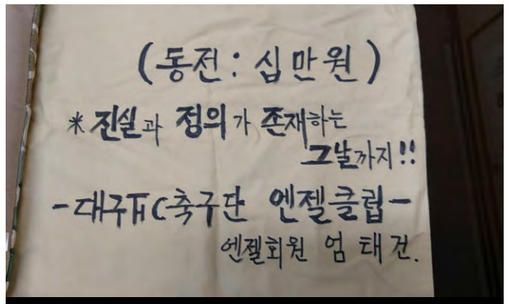
엔젤클럽 오심판정에 대한 항의 9월 30일

대구FC VS 인천UHD 경기에서 엔젤클럽은 지난 전북현대전과의 경기에서 부당한 오심판정을 받은 대구FC를 위해 오심판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하여 내걸었다.

대구대학교와 협약식 체결 10월 12일

대구대학교와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을 위하여 응원단 지원을 요청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은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엔젤클럽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납부하였다.

2017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엔젤클럽 벌금 부과로 인한 모금운동 시작 10월 16일

지난 9월 30일에 오심판정에 대한 엔젤클럽의 항의를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축구 협회 상벌위원회에서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엔젤클럽은 바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엔젤클럽 모금운동 10월 21일

대구FC VS 인천UHD 홈경기에서 엔젤클럽은 대구스타디움 현장에 모금함을 설치해 모금운동을 진행했다. 일반 관중들까지 참여해 2,250여만 원을 모금하였다.

삼성전자 핸드폰 기증 10월 26일

삼성전자에서 엔젤클럽의 대구사랑과 축구사랑의 숭고한 뜻에 감사하여 엔젤클럽 사무국에 11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8을 기증하였다.

대구FC 클래식 잔류 확정 10월 28일

대구FC VS 포항스틸러스 경기에서 엔젤클럽이 포항원정응원을 위해 포항구장을 찾았다. 엔젤클럽과 그라지예의 응원이 합쳐져 대구FC는 이날 포항 경기에서 클래식 잔류를 확정지었다.

엔젤데이 행사 준비 10월 30일

엔젤데이 행사 준비를 위해 위원회와 행사준비 출정식을 하였다. 이 날 초청된 위원회 분들은 엔젤데이 성공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대구 언론사 기자들과 조찬 11월 1일

대구의 언론사 스포츠담당 기자들과 조찬을 가졌다. 엔젤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조광래 사장, 안드레 감독과의 기념촬영 시간도 가졌다.

2017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주장 한희훈 선수, 세징야 선수 인터뷰 11월 3일

엔젤클럽회장과 대구FC의 주장 한희훈 선수가 만나 서로의 고충과 엔젤클럽, 대구FC선수단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후 스타디움에서는 세징야 선수의 팬미팅 같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대구FC VS 광주FC 11월 4일

대구FC VS 광주FC 홈경기 응원을 위해 엔젤클럽이 모였다.
엔젤클럽은 늘 홈경기마다 선수들을 위한 응원을 펼치고 있다.

엔젤클럽 회장 5분 스피치 11월 14일

전북현대전 이후 힘들어하는 선수단을 위해 엔젤이사들이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대구FC를 방문했다. 연습 경기장을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수단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였다.

협약식 3건 체결 11월 16일

태양인 이제마 한의원, 대구발전동우회, 그리고 대가대 미래지식포럼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하루만에 3건의 단체 협약식을 진행한 뜻 깊은 날이었다.

대구FC VS 전남드래곤즈 11월 18일

대구FC VS 전남드래곤즈 마지막 홈경기를 기념하여 선수단과 사진촬영이 있었다. 추워진 날씨에 김밥천사 김미숙 엔젤이 준비한 어묵이 엔젤룸을 따뜻하게 빛내고 있었다.

엔젤 1004명 영입 기념 엔젤데이 11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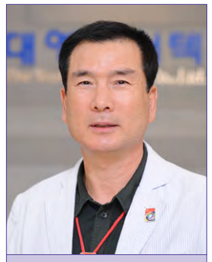
대구FC 엔젤클럽이 창단 1년 4개월 만에 1004명 엔젤영입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는 전 엔젤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일구어낸 쾌거다. 이를 자축하는 엔젤데이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다이아몬드 엔젤

※ 본 명단은 가입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삼보모터스(주) 이재하



대영코어텍(주) 정태호

(주)태왕이엔씨 노기원

(주)서한 조종수

삼익THK(주) 진영환

한국OSG(주) 정태일

(주)세신정밀 이익재

대흥코어텍(주) 진덕수

sl(주) 이충곤

엘젤클럽 자문위원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장익현	딤프 이사장 / 前 대구변호사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조종수	㈜서한 대표이사
도재영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회장	주대중	함창장학재단 이사장
박균경	경북광유 대표이사	진덕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호 회장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	진영환	삼익THK㈜ 회장
엄달현	㈜대창엠코 대표이사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총장 / 前 대구은행장
이병훈	㈜대구스테인레스	허홍만	명성골프 대표이사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민수	세영회계법인	권재원	㈜아우노	김상수	청운신협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권재행	한국다문화재판	김상완	㈜한백종합기술공사
강병호	㈜신경일염직	권정미	S라인 포톤 테라피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강보철	일진수지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김상원	부호체어원㈜
강삼동	㈜에이치	권혁	대구경북인재개발원 칠금	김상흔	㈜모던테크
강신일	㈜대영리츠건설	권혁준	요셉 성형외과	김석	삼덕아스콘
강영철	에스에스엘엠㈜	권호겸	㈜풍림	김석호	한도식품
강은주	한국일보	금윤식(법일)	㈜골든브릿지	김선일	㈜상일종합관리
강은희	전)여성복지부장관	김갑태	㈜동화주택건설 / ㈜아름	김성렬	㈜ 대성건업
강의원	㈜일신건설엔지니어링	김강수		김성률	
강일규	대서산업㈜	김경태	리더스 금융판매 / ㈜센트럴	김성열	㈜아나
강일만	㈜세신엔지니어링	김고용	㈜명종스틸	김성준	G&B모터스㈜ 스카니아 공식딜러
강정숙	동재건설	김관식	더나은요양병원	김성호	㈜오상인터네셔널 /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 본부장	김광덕	대구시 사격 연맹회장	김성호	㈜ 성산종합건설
강준기	포머스	김광배	㈜디에스종합건설	김세종	㈜천궁산업개발
강태중	㈜한도엔지니어링	김광수	㈜한맥창호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턴트
강해구	경민테크	김국경	㈜세영디엔씨	김수현	
고경집		김규일	㈜세원이엔지	김숙현	세원 공인중개사
고민환	주식회사 상산건설	김규정	삼성생명	김승근	대구일보
고백희	디자인 '감'	김규혁	포위즈시스템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고삼규	보광병원 병원장	김기철		김승필	㈜삼성프린팅솔루션
공영우	동성건재	김길복	대가대미래포럼	김시보	백두산업
공윤욱	선진회계법인	김길생	㈜동화주택	김시승	㈜다원
공인옥	㈜백향에스앤피	김대경		김애경	
곽기철	지우C&D	김대엽	㈜대영레데코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곽덕섭	㈜태명건설	김덕선	㈜우진비철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곽동호	곽치과병원	김덕영	성서연합외과의원	김영식	영진전공
곽신혁	eco farm㈜	김도현	㈜한국재생에너지	김영엄	지디종합건설㈜
곽재환	㈜중산도시개발	김동구	금복주	김영주	주식회사 경북람파
곽재훈	운경재단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김영준	변호사
곽준성	삼성전자	김동규	㈜범서	김영재	안경회계법인
곽진섭	㈜금오조경대표	김동섭	대구가톨릭 대학교	김영택	일월건업
구진우	PR네트웍스	김동우	World First	김영화	㈜영화
구명임	㈜크린포시스템	김동윤	㈜ 씨엠	김영희	구병원
구미숙		김동흡		김완준	㈜제이아이디
구본도	렉서스 대구	김말분		김용규	창녕 참우 축산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김명용	㈜명성	김용범	㈜에스알
권광		김명웅	DGB 생명 AM사업부	김용봉	㈜와이쓰리
권대열	㈜부원	김명진	한신특수가스	김용식	㈜청맥산업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김무길	삼성전자 무비스 B2B	김용운	㈜태하시스템
권상현	홍전사㈜	김미숙	주원	김용찬	㈜보광건설
권석원	동진건설㈜	김민석	㈜서한	김우일	김쌤 대표
권승진	경산인터불고CC	김민선		김윤곤	부성주식회사
권시원	㈜중산도시개발	김민지	스피치킴교육	김윤찬	CREDIT AGRICOLE Investment Bank
권업	테크노파크	김민태	제이와이 건설	김인수	대호화학산업
권연숙		김범대	미플러스피부과	김재엽	로이건설
권영갑	㈜EMS	김병렬	오성고속관광㈜	김재필	㈜주안
권오섭	㈜청구푸드시스템	김병오	필즈학원	김재필	산록 도시락
권오춘	아름다운건설	김상걸	㈜미래새한 감정평가 법인 대구지사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권오훈		김상덕	부경TS	김재홍	대구광역시 하키협회 / 대호약품
권일경	㈜위드	김상도		김정수	
권장대	㈜세화정공	김상섭	㈜티브로드 대구방송	김정수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정식	시민기자 회장	노영균	안강삼성의원	박우용	㈜대산라이팅
김정희	김정희건강피부관리시	노정섭	대어초밥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노주호	㈜대성아이디	박운락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노헌영	㈜경북코치서비스	박윤하	㈜우정정보기술
김종철	주식회사 신흥버스	노혜영		박은이	㈜슈만 /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지원단
김종호	㈜우인바스텍	농협두류은행		박인호	㈜삼영이앤티
김종호	㈜케이원	농협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박재범	
김종환	㈜메디피아이앤씨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대구총국	박재영	
김종훈	영남대학교의료원	도건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박재현	㈜신우씨엠디
김종희	웨딩하모니	도윤호	대영 코어텍㈜	박점희	플라워아트 / 한국화원협회
김주성	광개토병원	도재영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박정기	진성, 일진종합건설
김주형	웨딩쿨	두준옥		박정민	㈜칸여행사
김주환		류영애	세무사	박정배	㈜우방
김준현	세무법인대명	류형우	대구예총	박종철	㈜우일건설
김준홍		류훈	중앙세라믹스	박종호	㈜삼정 종합폐차장
김지건		문길남	신세계	박종홍	금호개발
김지미	㈜시마	문문문	㈜디에스팩	박종화	세보종합건설 (달서구 축구협회 회장)
김진엽	송산엘엔씨	문영일	㈜태흥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김진일	무창산업	문재혁	㈜동아티오엘	박준	계림물산㈜
김창식	㈜경북합판	문준기	대경맥주㈜	박준규	㈜이노베이션
김창욱		문현훈	덕영치과 기공소	박준섭	박준섭 법률사무소
김창호		민재철	㈜뛰는아이들	박준수	
김창희		민춘홍	한국PIPE	박중희	㈜TS 스틸
김춘희		박경국	㈜성우 아이디	박지훈	농협중앙회 – 고령축산물공판장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박경우	현창건설	박진숙	동일가구
김태길	피앤에이	박경진	해나 C&D	박진우	효성종합 건설
김태순	팔공온천 호텔	박경환	박경환 변호사 사무실	박진향	어번라이팅
김태형	피앤에이	박관식	명진BS치과	박찬력	경북봉투사
김태훈	태경건설	박기양	세무사	박찬학	체육시설 팀장
김판권	㈜명산	박기자	㈜무영	박창오	신화헬스앤드의료기
김한수	마이스사업연구원	박대진	㈜이비팜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김해용	인덕염공㈜	박동술	성동제통의원	박태민	뮤직라운지 팬트하우스
김헌만	서원종합건설㈜	박미경	삼성요양센터 / 자인삼성요양센터	박태정	주원조경
김현수	대호기업	박병구	예종수석부회장	박한석	팔공 컨트리 클럽
김현숙	(재)한국의학연구소 KMI	박병규		박해대	㈜미래테크
김형동	대구시 체육과장	박병욱	체인사업본부/대한구국보훈회	박해동	경북 요양병원
김호준	준 애니팜	박병욱	달인의 찜닭	박해인	유진제지
김홍근	건축사사무소 ADF	박석현	TBC	박현경	
김홍식(김쌤)	대경대학교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현근	
김홍철	한청 달서와룡지회장	박성욱	㈜삼송BNC	박현주	장아푸드
김휘종	주식회사 굿유니폼	박성준	가족엔젤	박혜영	전) 국어교사
김홍수	주식회사 이명E&C건설	박성훈	㈜피닉스건설	박혜은	
김희곤	연세재활요양병원	박성희	㈜AK메디 / ㈜한울홀딩스	박희경	도미니크
김희찬	PEGDYCCO	박세정	링크샵 커뮤니케이션	반용석	반치과
나광무	엘리바덴 온천	박소민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협의회	반정욱	미르건축
나상수		박소이	미래테크	방우정	명예회원
남경원	경원치과 상사	박순복	대가대미래포럼 리더스클럽	배극종	씨엘비건설
남병환		박승국	이시아요양병원	배명수	근영토건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박승현		배문구	승창침장
남재현	러버원	박신영	하나투어	배석우	에스와이하우징 대구경북총판 / 세중정공
노기원	㈜태왕이엔씨	박신제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딤프) / 예술기획 성우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대표	박영석	계명대학교 교수	배영호	영신에프엔씨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배우균	카이도 코리아	소정호	미래테크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배인규	한남라이팅	손동태	미래테크	양대석	㈜약령시 사람들
배인호	성호건설㈜ / 경북건설협회	손동현	동현케이블	양승섭	㈜대경
배장수	진명전력 주식회사	손민호	동서가스	엄경록	㈜대철
배창희	인텍텍스타일	손병갑	로타리3700지구 / ㈜성도	엄관식	엄관식 수학교습소
배태관	백산자카드㈜	손상명		엄달현	㈜대창엠코
배효삼	㈜달구벌석건	손상주		엄복태	스타커뮤니케이션즈㈜
백건호	㈜경동BK	손성태	성진포머	엄재국	㈜포맨
백덕열	지오 종합건설	손수완	㈜수경	엄태건	㈜태준메디칼
백무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손영훈	성도팩	여승훈	상록수재단
백복현		손원배	태명약업사 태명헬스케어	여태용	세계 주류 대표
백순정	네추럴프러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	예영숙	삼성생명 명예전무
백영기	아름다운 사람들	손주옥	㈜한국재무설계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백용환	미래테크	손중배	㈜유레카	오기우	㈜엘리건스
백운규	우림종합엔지니어링 /은마건설	손지영	삼성디지털프라자 수성점	오무선	OMS뷰티살롱
백운일	㈜백광테크	손형문	대진렌탈	오순덕	
백을수	㈜국제ITS	송남희	본죽 시지점	오재완	㈜한국 키네티코 엔지니어링 / 에스엠인더스트리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송대선		우경호	제일약품㈜
백현석	더블유병원	송미향	㈜현대미주여행사	우승민	스포츠와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우영제	㈜한영
변향숙	돈모닝 식당	송원배	㈜대영씨앤디	우외태	유화 비앤피
서기수	즐거운 세상 / 바르미	송정우		우종곤	영인 E&C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유다건	경대일어일문학과
서상인		송진오	㈜아이에스메이드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서상협		송재은	부부엔젤	유호정	
서상환	현대개발	송해선	하나은행	윤귀자	
서숙영		신경우	㈜부창솔라	윤민환	교촌치킨 황금점 / 황금상가 연합회 회장
서순옥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윤소원	한국일보
서영득	색동가방	신기영	ARSTROMA	윤영수	㈜우정건축자재
서용교		신선영	대구미래대학	윤용득	교통시스템 연구소
서정우	신성기업 / 포그니코리아	신성필	㈜세양	윤종현	수성문화원
서정욱	광고회사 MSC	신영재	계명대학교	윤종현	세진토목
서정원	㈜대선	신영필	주노캐피탈	윤창권	그린에어시스템
서제영		신용범	㈜한미산업	윤태경	바로본병원
서종균	대경전력	신재열	㈜안다미로	윤형돈	미래에셋대우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신재천	대구영화인협회	은영기	한솔개발
서중호	주)아진산업	신철균	다모 건축사	이갑열	
서찬곤	㈜E하얀바다	신철수	에나 인더스트리	이강태	한국교통정보
서찬교	대원전기	신현창	㈜육일디앤씨 / 원더풀스파랜드	이강하	산록로타리 차기지구
서철현	대구대학교	신호철	플러스메드 / 삼성메디슨	이경곤	주식회사 유성기초
서태현	㈜산동개발	신화섭	여행박사	이경호	㈜한길산업
서형석	투썸플레이스 / 서린디앤씨	신희득	㈜용성건설중기	이경호	약사
석경환		심건희	㈜천지재건	이경훈	인터불고 아티스클럽
성경환	성경건설	심상형		이광해	아사다라
성달표	현대통상 대표	심인철	동명테크원㈜	이기만	대경영상의학과
성무용	대구은행 부행장	안상영	광진종합건설㈜	이기식	㈜현대스텐
성병철	㈜디자인JSP	안성용	㈜앤디스코나	이기화	행복을 심는 치과
성부영	정일건설㈜ / 삼억건설㈜	안용모	경일대 석좌교수	이대영	
성석훈	㈜대덕건설 / ㈜명덕건설	안조셉	미래테크	이대우	기운산업
성수환	신영남산업 주식회사	안종수	태권도협회회장	이대형	세계실업㈜
성점화	㈜뉴프라임	안준태	예진건설	이덕록	㈜서보
성정용	㈜신도시건설	안태현	태현전력	이덕현	디스이즈모든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재덕	금성가구	임명섭	㈜영남바른상조
이동건	Sk건설	이재덕	한국인의 밥상	임병욱	
이동경	㈜도원투자개발	이재익	가람테크	임상택	위드고
이동관	매일신문	이재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임상훈	엔티엘의료재단
이동군	㈜군월드	이재하	삼보모터스	임영미	DGB생명
이동명	㈜자비스	이재혁	녹색연합	임영태	농협 사월지점
이동섭	영남장애인신문사 / 미르코리아	이재형		임용규	
이동성	㈜홍맥 건축디자인 한청 전국회장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임익기	브라이튼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재훈	푸드원	임재현	㈜현대목재산업
이동원	변호사 이동원 법률사무소	이정미	아사무역	임재형	㈜원규
이동현	㈜우행주 건축	이정주		임창광	KOG
이명현	달성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정훈	㈜TPC	임홍규	㈜대평산업개발
이무철	금용기계㈜	이종경	㈜도원	장기석	주호산업, 아인
이문열	대신공영	이종복	삼해인더스트리	장기식	JCI
이민화	㈜백강	이종운	덕재건설	장기철	부강철강
이병훈	㈜대구스텐레스	이종원	KOG	장도미	㈜Queens
이복환		이종현	㈜퓨리치	장동렬	경산건업
이복희	광덕전력	이주형	㈜앨컴	장민우	주식회사 대영금속
이상권	운경재단	이준근	SSLM주식회사	장병배	범어 대성당
이상락	한국관광용품센타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장병환	삼보이데아
이상열	㈜씨유컴퍼니	이중원	경산상공회의소 / 원호금속㈜	장성태	대한개발
이상탁	반도광학(반도옵티컬)	이중호	㈜세신정밀	장세철	고려건설
이상혁	㈜비토코리아 / 슬립리스인시애틀	이지언	운경재단	장수미	
이상효		이지완	명진BS치과	장안중	석문전기
이석우	㈜삼진씨앤씨	이진백	G&B오토모빌㈜	장영자	HILIVING
이선찬	진성테크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장원규	㈜화성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진호		장원용	대구MBC
이성구	대구의사회 부회장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장윤제	장윤제연합치과의원
이성동	금보건설	이창근	극동1급정비공장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이성배	㈜예가	이창두	㈜알파메틱	장재철	
이성태	주식회사 풋살스포츠	이창영	경산성당 신부님	장재태	영대ROTC총동창회장
이성하	BL성형외과	이창환	토담건축사	장재화	㈜장녕참우축산
이소윤		이창희	이코노식자재마트	장정숙	㈜자원환경
이승진	나우산업개발	이충곤	sl㈜	장정호	장정호 법률사무소
이승현	㈜동서개발	이충경	JUWEL J	장종욱	야곱의집 / 대구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
이시연	DESIGN GROUP KHAN	이태훈	㈜에드앤피알스미스	장팔술	
이암우	옛밥사랑협동조합	이필후	SKF본부장	장홍석	대원테크
이영순		이한일	드림원장	전미조	효성복지재단
이영우	㈜대광엔지니어링	이헌	코디박	전성렬	동양OA
이영준	선경건축자재센터	이헌수	MG새마을금고	전수근	삼명종합상사
이영호		이현득	변호사 사무실 이현득	전영호	팔공신협
이원영	㈜평산개발	이형선	지성건설㈜	전용수	㈜신동아관광
이원우	한은 이앤씨	이형원	일성침장	전익상	
이원찬	㈜아진산업	이호경	월드산업 주식회사	전재관	전재관 한의원
이윤성	대구동부순환도로㈜	이호경	㈜대영에코건설	전중달	제이디 건설㈜
이윤하	그린사이언스	이화선	㈜화선	전태제	대구CC
이윤환	미래테크	이희도		전해영	화인건축사
이은준	㈜SJ홀딩스	이희준	SGI 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정경용	民 초심
이응찬	북구갑청년위원장㈜건화	이희채	건축설계사무소	정군섭	대영산업
이익재	㈜세신정밀	인재현		정기욱	
이인경	㈜서울원복	임건주	다온비앤에이	정기은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 화인쿠치네	임광호	열린치과	정기출	삼성 대구법인지점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모경	정원자카텍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최준혁	
정민교	대영모던텍㈜	주윤수	토정건설㈜ / 토정개발㈜	최창배	신항도시개발㈜
정병창	세종건설	진경훈	㈜코앤코	최철환	광풍 퍼니처
정병환	대구시보도기획팀장	진덕수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최태원	
정성인	㈜GJ에셋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최한교	디스이즈모든
정소영	창성산업	진혜윤	㈜보강디엠에스 / 넥서스투어㈜	최해동	
정승진	한국OSG	차순봉	선우종합건설	최현희	㈜아르데코무이
정연일	한 패밀리 병원	차인석	대성엔팍스	최효욱	㈜월성주택
정영만	J아르곤	차훈일	㈜샘초롱 농업회사법인	추재엽	㈜대영에코건설
정영목	㈜대한피엔씨건설	천용구	㈜가우 / 대구실내 디자이너 협회장	추화엽	대성크린텍
정영준	㈜다원아이디	천종열	㈜윤성건설	하달용	㈜삼건환경건설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천종태		하승우	하승우내과
정용화	빠리바닷가재	천항구	연세클리닉	하윤수	한국공조
정우필	㈜서한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하정식	서보정밀
정원호	㈜삼화봉재	최경수	76기	하종범	더 포스코샵
정일균	㈜다온시스템 / 대구스쿼시 협회	최고현	MBC보도국장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장화	주성안전기	최규락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	하태욱	대구과학대학교
정재간	대구대학교	최대식	㈜동경주산업개발	하호만	농협 두류지점
정재석	탑메디케어	최동욱	㈜한라개발	한금재	㈜한국테크
정재호	초록들코리아㈜	최명수	㈜오성종합주류	한금재	케이프린텍
정정국	㈜지엠이엔씨	최명환	정건사종합건축사사무소㈜	한도준	삼익키라우
정태경	㈜대성건업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한동엽	방천시장가족족발
정태일	한국OSG	최미애		한상섭	대구 경상병원
정태호	대영 코어텍㈜ / 대영㈜ / 대영모던텍㈜ / 꿈그리기㈜	최상대	화진기공사	한영필	㈜에스피코리아
정택수	매일애드	최상무	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본부장	한화용	금도에너지㈜
정하용	동진특수인쇄	최석훈	남산병원	함동호	에듀대표
정한채	청운신협	최선주	㈜연호개발 / 제이엠지개발	허용훈	㈜건화트렐러보그
정현수	㈜보극이엔씨	최성문	크레텍 책임	허원회	HK GOLF
정호균	메디피아	최성욱	㈜책임전력공사/한청내무부회장	허정수	명진약품
정홍표	㈜홍성건설	최성주	㈜동진금속	허진걸	㈜영산전기
조규현		최세욱	㈜ 우경정보기술	허진구	일성건설와촌신한
조두석	㈜에드메이저	최승규	한청지도자연합회사무처장/이에스티산전	허필수	동성중공업
조득환	㈜금강알텍	최양원	㈜이루케미칼	허흥만	명성골프 대표
조만현	㈜동우씨엠건설	최영철	㈜삼코	헌성규	우진시스템
조민규	프로골퍼	최영환	동명테크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조민성	동영염직㈜	최영훈		현정규	한국청년협의회감사
조병래	디자인해밀	최예영	태양인이제마 한의원원장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 추진본부
조봉준	동일	최오원	㈜이렌트카	홍석환	소방감리원 기술단
조선용	유마스템 메디컬 그룹	최용석	빠큰감자탕	홍영돈	에스와이패널㈜
조성섭	㈜도원이엔씨	최우각	㈜대성하이텍	홍장헌	㈜뉴영남인테리어
조성수	에이엘테크	최우영		홍진수	
조영래	㈜원형D&C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홍효정	
조영만	제이에이치	최은석		황성	㈜진일공업
조용호	㈜어펙시스템	최익진	㈜풍국면	황세영	매천축산 / 초원한우
조장형	㈜나래피움	최인철		황영	㈜푸르맘
조정옥	두손건축	최인호	㈜명성티엠에스	황우곤	파인스트리트
조종수	㈜서한 대표 / 대구건설협회	최일경	명문텐탈	황인혁	인성데이타
조준근	대구시 학원 총연합회	최재호	주식회사 골든크라운	황정현	
조준호	㈜태일	최재홍		황종길	성신건설
조철래	㈜성지여행	최종태	㈜솔트커뮤니케이션즈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최종해	동양종합건설㈜		
조혜림		최주희	변호사		

Daegu FC Report

"포기하는 그 순간이 곧 경기의 종료다."
-마크 오베르마스(네덜란드, 前 네덜란드 대표선수)

2017 축구는 대구다

'성공적인 클래식 연착륙'

대구FC의 2017시즌 돌아보기

대구FC가 8위로 2017시즌을 마치면서 클래식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

대구는 지난 18일(토) 오후 3시 전남을 상대로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에서 전현철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거둔 대구는 올 시즌 8위(승점 47점, 11승 14무 13패)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값진 성과였다. 대구는 2017시즌을 앞두고 강등 0순위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쉽지 않은 시즌 초반을 보냈다. 수문장 조현우가 전지훈련 도중 부상을 당했다. 게다가 개막 첫 경기부터 주포를 잃었다. 야심차게 영입한 주니오가 광주와의 1라운드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한 것이다. 주니오의 대체자로 에반드로를 데려왔다.

5라운드에서 전남을 상대로 4년 만에 클래식 무대에서 승리를 거뒀고, 8라운드에서는 에반드로의 멀티골로 '상위권'에 올라있던 FC서울을 잡았다. 하지만 상승세로 이어가지 못했다. '에이스'세징야 그리고 '주장'박태홍의 부상이 다시 한 번 대구의 발목을 잡았다.

5월 4연패로 손현준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안드레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았다. 안드레 감독대행은 첫 경기에서 상주에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보여줬다. 이후 대구는 짧은 부진에 빠졌지만, 여름이적시장에서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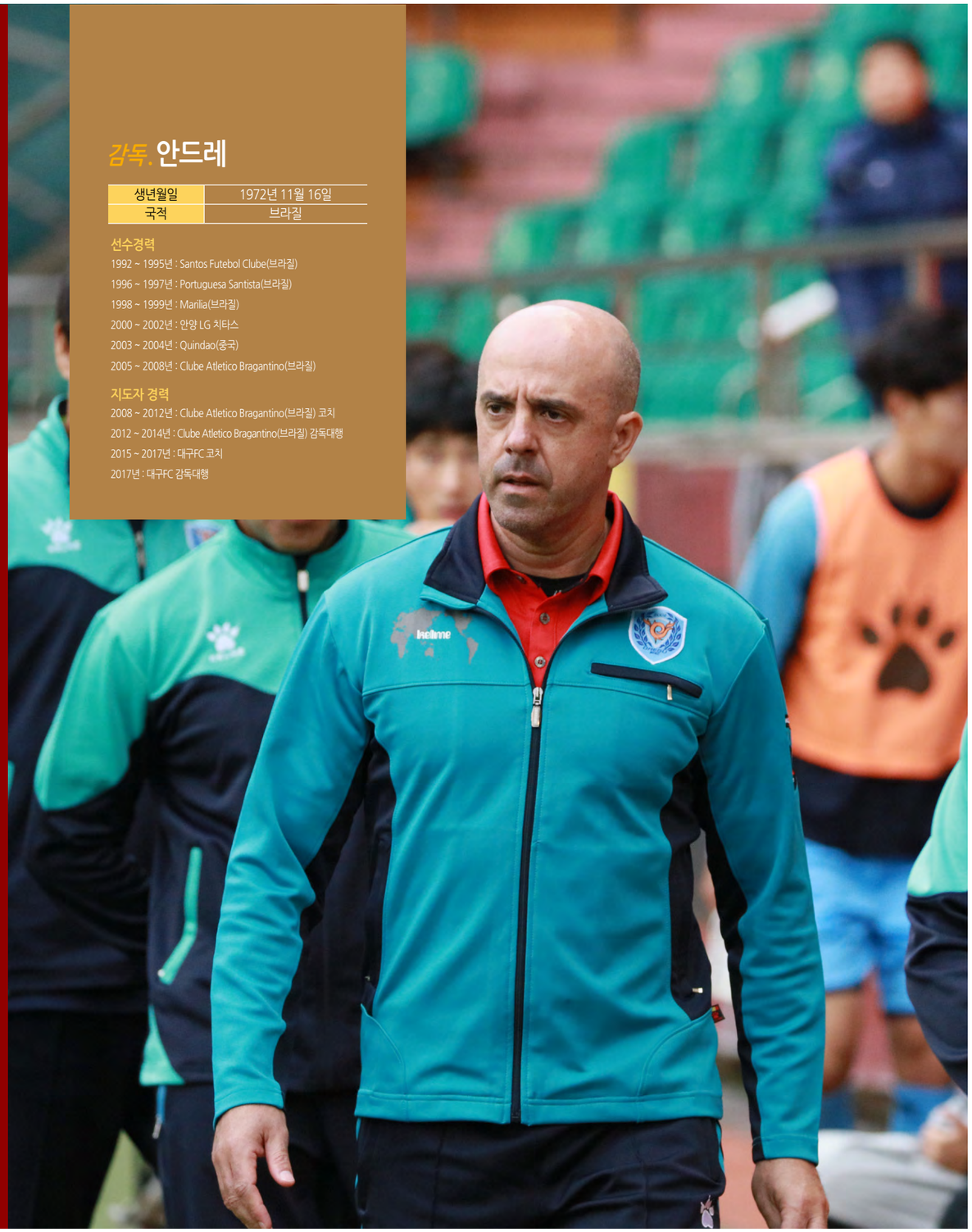
주포 주니오가 팀에 복귀했고, FC서울로부터 '베테랑 수비수'김동우를 영입했다. 9월에는 황순민이 상주상무에서 복귀하면서 중원보강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효과는 바로 드러났다. 대구는 22라운드에서 세징야, 김진혁, 에반드로의 연속 골로 포항에 3대0 완승을 거둔 이후 38라운드까지 무서운 기세로 상승세를 타면서 일찌감치 리그 8위와 클래식 무대 잔류를 확정지었다. 22라운드 이후 대구가 거둔 성적은 8승 7무 2패로 승률이 67%(무승부를 0.5승으로 계산)에 달한다. 클래식 잔류의 향방을 결정하는 스플릿 라운드에서는 3승 2무로 한 차례도 지지 않았다.

공수에 걸쳐 탄탄했다. 50골을 터트렸고 52골을 내줬다. 스플릿 B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득점, 가장 적은 실점이다. 공격에서는 브라질 공격수들의 호흡이 빛났다. 대구가 터트린 50골 중 37골을 주니오(12골), 에반드로(11골), 세징야(7골), 레오(7골)가 나눠가졌다. 특히, 후반기 맹활약한 주니오, 에반드로, 세징야 트리오는 환상의 호흡으로 상대 골 망을 흔들어 팀 잔류에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그 뒤를 수비진이 뒷받침했다. '주장'한희훈과 '국가대표'골키퍼 조현우를 중심으로 김동우와 김진혁이 골문을 지켰고, 정우재, 홍승현, 오광진 등은 양쪽 측면을 부지런히 오가며 제 역할을 해냈다. 특히 조현우 골키퍼는 올 시즌 35경기 48실점, 10경기 무실점, 144선방(리그 1위)의 활약으로 대구의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이끌어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 GK'를 수상했다.

대구는 승격 첫 해 클래식에서도 '대구 축구'가 통한다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바로 '스플릿 A' 그리고 'ACL(아시아 챔피언스리그)'진출이다. 축구전용구장, 클럽하우스 건립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구단으로 성장하는 대구의 발 걸음에 팬들의 관심이 모인다.



감독. 안드레

생년월일	1972년 11월 16일
국적	브라질

선수경력

1992 ~ 1995년 : Santos Futebol Clube(브라질)
1996 ~ 1997년 : Portuguesa Santista(브라질)
1998 ~ 1999년 : Marilia(브라질)
2000 ~ 2002년 : 안양 LG 치타스
2003 ~ 2004년 : Quindao(중국)
2005 ~ 2008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지도자 경력

2008 ~ 2012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코치
2012 ~ 2014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감독대행
2015 ~ 2017년 : 대구FC 코치
2017년 : 대구FC 감독대행

대구FC, 새 사령탑에 **안드레 감독 선임**

역대 최초 K리그 선수 출신 외국인 감독, 96경기 18득점 27도움 기록
올 시즌 감독대행으로 8승 11무 6패 기록, K리그 클래식 잔류 이끌어

대구FC가 16일(목) 올 시즌 대구의 클래식 잔류를 이끈 안드레 감독대행을 제10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안드레 감독은 2000년 K리그 도움왕을 기록하며 안양LG(현 FC서울)를 우승으로 이끈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당시 브라질 마릴리아에서 K리그로 건너와 3년간 96경기에 출전해 18득점 27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17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은퇴 이후 브라질 세리에B 리그 브라간치누(Clube Atletico Bragantino)의 코치, 감독대행으로 지도자 경험을 쌓았다.

2015시즌 코치로 대구FC와 인연을 맺었고, 지난 5월 손현준 전임 감독이 자진 사퇴하면서 감독대행으로 팀을 이끌었다. 감독대행으로 8승 11무 6패를 기록했고, 특히 22라운드 포항에 3대0 완승을 거둔 이후 37라운드까지 7승 7무 2패의 호성적으로 대구의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이끌었다. '잔류 승부처'였던 10월에는 2승 2무를 기록, 'K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역대 최초 K리그 선수 출신 외국인 감독이 됐다.

안드레는 "선수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1부 리그 잔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은사 조광래 대표님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더 큰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감독으로 선임된 소감을 밝힌 뒤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다.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스플릿 A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며 2018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DF6.

한희훈

등번호	6번
생년월일	1990년 8월 10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3cm / 78kg

경력

2013~2014 : 에히메FC(일본) / 34경기2득점

2015 : 도치기SC(일본) / 31경기 1득점

2016 : 부천FC / 40경기 3득점

수상경력

2011 : 전국대학축구대회 우수 선수상

대구FC의 캡틴 **한희훈을 만나다!**

울긋 불긋 가을 낙엽이 내려앉은 가로수 길이 꽃 길보다 더 가슴을 설레게 하는 대구미술관 길을 지나 대구FC선수들의 숙소가 위치한 육상진흥센터에 점심시간을 맞춰서 도착했다. 엔젤 메거진 가을호에 실을 캡틴 한희훈 선수와 오찬 겸한 대담 인터뷰를 위해서다. 넉넉한 미소와 밝은 인상의 아주머니한테 집밥같이 정성이 듬뿍 담기고 입맛까지 돋구게 만드는 선수단 숙소의 식당에서 마주한 우리 대구FC의 믿을 맨! 주장 한희훈을 만났다. 마침 선수단 숙소를 들른 조광래 사장님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점심도 같이 했다. 식사 후 한희훈 선수와 숙소 정원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겸한 인터뷰를 했다.

잔류에 대한 축하의 인사에 오히려 한희훈 선수는 믿고 응원해준 엔젤클럽과 팬들에게 먼저 고마움을 나타냈다. 상지대 졸업 후 일본 리그에서 뛰다가 부천FC에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던 중에 작년 대구FC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합류한 터라 낯설고 적응하기에도 쉽지 않았을텐데 이젠 대구FC에서는 한희훈 없는 수비라인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하자,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사실 시즌 초반에는 챌린지와 클래식과는 공격수들의 수준차이가 확연해 무척 어려웠다고 실토했다. 특히 주장인 박태홍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자 주장 대행역할까지 수행하느라 정신없었다고…. 그래도 워낙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선수들 독려하면서 악바리처럼 뛰어다녔다며 소회했다. 시즌 초반의 아쉬움이 상당히 남아있는 듯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팀도 두렵지 않다고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 든든함까지 느껴졌다.

지난 9월 24일 전북전 얘기를 꺼내자 잠시 말문을 닫더니, 억울했지만 지나간 경기에 매몰되기 보다는 선수들에게 다음 경기에 집중하자고 다독였다고 어른(?)스런 얘기를 했다. 그 경기 후 많은 변화를 느꼈었다고…. 사실 엔젤클럽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고 그냥 팬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나 토로하고 싶었던 행동들을 엔젤클럽에서 엄청나게 들불처럼 일어나서 활동 및 격려를 하는 통에 격하게 감동받았다고 했다. 주장으로서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공감을 가졌다며 이후 엔젤클럽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했다. 지금은 엔젤클럽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고 인정한다고도 했다.

지난 인천 원정경기 때 손등 골절 부상 중임에도 출전을 강행하는 투혼에 감동받았다고 하자 수술을 시즌 뒤로 미루면서 까지 절박했다는 한 캡틴의 말에 존경심마저 들었다. 솔선수범은 물론 살신성인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여타 선수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을 것 같았다. 그 결과 2경기를 남겨놓은 지금에 잔류를 확정짓고 조금은 여유로운 상태에서 남은 경기를 편하게 관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다. 물론 본인은 단 1%라도 강등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에이스 역할의 세징야나 특급 골잡이 주니오 그리고 폭주기관차처럼 돌파 후 멋진 골로 팬들을 열광시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 선수는 아니지만 소리없이 문전에서 굳은 일은 도맡아서 하고 실점 방지를 위해 온 몸을 던지는 선수, 체력 떨어진 선수들에게 소리지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주장 한희훈 선수를 우리 엔젤들은 "언성 히어로"라고 부른다.

바쁜 시간에 인터뷰 응해준데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하자 꼭 이 말은 하고 싶다고 했다. "정말 엔젤클럽과 여러 엔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엔젤님들의 기대에 꼭 보답해 드리고 싶고 상위 스플릿까지 진출해서 ACL까지 도전해보겠다"라는 다짐의 말이었다.

GK21. 조현우

등번호	21번
생년월일	1991년 9월 25일
포지션	GK
신장 / 체중	189cm / 76kg

대표경력

2010년 : U-19 청소년 대표
2010~2011년 : U-20 청소년 대표
2011년 : U-23 올림픽 대표
2011년 : 유니버시아드 대표
2012년 : 덴소컵 대학선발 대표
2015년 :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력

2013년 : 대구FC / 14경기 22실점
2014년 : 대구FC / 15경기 21실점
2015년 : 대구FC / 41경기 49실점
2016년 : 대구FC / 39경기 35실점

대구FC 조현우 3년 연속
K리그 베스트 11 GK 수상

2015, 2016 챌린지, 2017 클래식 베스트 11 GK 부문

대구FC의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이끈 조현우가 20일(월)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 K리그 2017 대상에서 베스트 11 GK 부문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조현우는 2015시즌과 2016시즌 K리그 챌린지, 2017시즌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3년 연속 베스트 11 GK에 선정되면서 K리그 최고의 수문장임을 입증했다. 조현우는 수원삼성의 신화용, FC서울의 양한빈과 함께 GK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기자단 투표에서 133표 중 63표를 얻어 47.4%의 득표율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현우는 "팬들의 사랑, 저의 노력 그리고 팀 동료들의 힘으로 잔류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감사할 분이 많다. 저를 많이 성장 시켜주신 이용발 코치님, 김해운 코치님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조광래 사장님, 대구FC 모든 직원 분들, 팬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노력하겠다."며, 베스트 11 GK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현우는 2013년 대구FC에서 프로에 데뷔해 다섯 시즌 째 대구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원클럽맨'이다. 지난 해 눈부신 선방으로 팀 승격에 힘을 보탰고, 올 시즌에는 35경기 48실점, 10경기 무실점, 144선방(리그 1위)의 활약으로 대구의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이끌었다. K리그 통산 144경기에 나서 175실점,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U-19, 20, 23 등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고, 국가대표팀에는 2015년 처음 승선해 지난 14일(화) 울산 문구축구경기장에서 세르비아를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주니오, 대구FC에 ‘팀 통산 700호 골’ ‘클래식 잔류’ 선물 안기다!

대구FC가 2003년 처음 K리그에 뛰어든 이후 15시즌 만에 팀 통산 700호 골을 터트렸다.

700호 골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주인공은 브라질 공격수 주니오다. 주니오는 지난 10월 28일(토) 오후 3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E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6분 대구의 선제골을 터트렸다.

FW9.
주니오

등번호	9번
생년월일	1986년 12월 30일
국적	브라질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87cm/85kg

경력
2009 : ABC(브라질 전국 2부) / 20경기 11득점
2010~2011 : Beerschot A.C.(벨기에 1부) / 18경기 7득점
2011~2012 : Lausanne-Sport(스위스 1부) / 20경기 4득점
2012 : Guarani(브라질 전국 2부) / 9경기 1득점
2013 : Tombense(브라질 미나스 주 리그) / 13경기 8득점
2013 : América RN(브라질 전국 2부) / 15경기 3득점
2014 : Tombense(브라질 미나스 주 리그) / 11경기 2득점
2014 : América Mineiro(브라질 전국 2부) / 17경기 2득점
2015 : Oeste(브라질 전국 2부) / 41경기 7득점
2016 : Pattaya United(태국 1부) / 29경기 20득점

대구FC가 2003년 처음 K리그에 뛰어든 이후 15시즌 만에 팀 통산 700호 골을 터트렸다.

700호 골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주인공은 브라질 공격수 주니오다. 주니오는 지난 10월 28일(토) 오후 3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E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6분 대구의 선제골을 터트렸다.

주니오의 골과 에반드로의 추가 골을 더해 대구는 이날 경기 2대1 승리,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2017시즌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확정지었다.

주니오의 선제골이 대구FC의 통산 700호 골이자 2017시즌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확정지은 ‘선물’같은 골이 된 셈이다.

주니오는 187cm/85kg의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로 신체조건을 활용한 헤딩, 몸싸움 능력이 뛰어나며, 빠른 발과 화려한 드리블, 골 결정력 등 힘과 기술을 모두 겸비했다.

브라질에서 프로에 데뷔해 벨기에 리그, 스위스 리그 등을 거쳤고, 2016시즌에는 태국 프리미어리그 파타야 유나이티드에서 29경기에 출전해 20득점을 터트리며 리그 득점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니오는 올해 초 대구FC에 합류해 동계훈련을 모두 소화했으며, 1라운드 광주전에서 부상을 당해 선수단에서 이탈하는 불운을 겪었으나, 약 4개월간 혹독한 재활과정을 거쳐 여름 이적시장에서 대구 유니폼을 입게 됐다.

다시 팀에 합류한 주니오는 후반기 대구FC의 해결사로 팀 잔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6라운드 광주전에서 득점포에 시동을 건 주니오는 27라운드 상주(1골), 28라운드 포항(2골), 30라운드 울산(2골), 31라운드 전북(1골)전에서 골 맛을 보며 파죽지세의 기세를 이어갔고, 33라운드 전남전에서는 해트트릭을 터트리며 물오른 득점감각을 뽐냈다.

이후 스플릿 라운드에서 2골을 추가한 주니오는 후반기에만 16경기 12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이는 경기당 0.75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조나탄(0.759골)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
“대구FC에서 우승트로피 들고 싶어요”

아내의 바람은 대구에 평생 사는 것,
브라질 가면 좋은 사람들 데리고 나오고 싶어~

가을빛이 찬란했다. 이전 포항 원정경기에서의 승리로 클래식 잔류를 확정짓고, 여유로운 2경기를 남겨둔 11월초 대구스타디움의 가을은 더욱 아름다웠다.

세징야 부부가 좋아하는 까페라는 홈플러스 투썸플레이스에 선남선녀가 들어섰다. 운동선수라기 보다는 패션모델부부인 듯 멋지고 아름다운 부부의 등장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악수를 주고받으며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세징야 부부보다 더 들뜬 엔젤들의 선물공세가 이어졌다. 엄태건 엔젤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부탁해, 인사동에서 태극문양의 여권지갑을 부부 세트로 준비했다.

예쁜 꽃다발을 1년 동안 세징야가 잘 뛸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 아니엘리에게 전달하면서 두 사람에게 사인볼을 내밀었다. 지인들에게 선물할 거란다.

멋쟁이 조광래 사장님께서 빈 지갑 선물하는 거 아니라며 5만원권을 한 장씩 찔러 주었다. 세징야 아내 아니엘리는 여권지갑이 없어서 그냥 들고 다녔는데 잘됐다며 좋아했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나전칠기 보석함을 선물로 준비했다. 세징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보석함을 채울 보석을 많이 사주어야할 것 같아 약간 부담스럽다는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어떤 점에 끌렸어요?” 선물증정이 끝나고 커피가 도착하자 질문이 터져 나왔다.
아니엘리는 할머니가 일본인이어서 일본에서 8년을 살았다. 일본에 사는 동안 휴가차 브라질로 들어갔다가 세징야를 알게 됐고, 다시 일본에 돌아온 후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 아니엘리는 세징야가 너무 자상한 남자여서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아내 아니엘리의 미모가 너무 출중해, 혹시 패션모델이 아니냐고 물었다. 대답은 뜻밖에 축구선수였다는 거다. 세징야뿐만 아니라 아니엘리가 축구선수였단다. 언니가 일본에서 패션모델 활동을 했으나, 아니엘리는 축구선수이니 구단에 영입해도 좋을 것이라며 웃었다. 아내가 세징야만큼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세징야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내의 조언과 지지가 매우 소중하다고 한다.

세징야의 인생 멘토는 아내, 아니엘리다. 경기 때 잘한 점, 못한 점을 아내와 함께 분석하고 평가하며, 경기가 잘 안풀렸을 때도 속상한 마음을 아내에게 털어놓고 위로받는다. 세징야는 아니엘리 칭찬을 해달라는 말에 거침없이 '최고의 아내'라고 대답했다.

세징야는 2016년 대구유니폼을 입었다. 대구가 첫 해외진출인만큼 '적응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었냐?'는 질문에 활짝 웃으며, "한국에 귀화해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오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오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 오길 참 잘 했다' '대구FC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구단 분들과 동료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여기가 내 나라 인가? '싶을 정도라고 한다.

아내 덕분에 본국 음식도 불편 없이 잘 먹고 있고, 한국 음식들도 매우 맛있단다. 세징야는 특히 한국밥을 좋아한다. 고기구이와 라면도 세징야가 좋아하는 한국음식이다.

경기가 없을 때, 부부는 신세계백화점, 동성로 등 도심쇼핑을 즐긴다. 때로는 부산으로 가서 절친인 레오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세징야는 빠른 발을 활용한 드리블 돌파와 슈팅력, 골 결정력 등을 고루 갖춘 측면 공격수로 안드레 감독의 추천을 받아 대구FC에 입단했다. 세징야는 '대구FC입단결정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매우 만족"이라고 대답했다.

세징야는 "안드레가 자신을 잘 알고 기량을 믿고 추천했지만 이렇게 팀의 주전이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팀들과 함께 하면서 기량이 많이 발전했고, 매우 만족하며 그에 따른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팬들 사이에 불리는 세징야의 별명이 "대구의 에이스"라고 알려주자 세징야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별명이 있는 줄 몰랐다"며 "아직은 에이스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팀 모두가 에이스"라고 말했다.

2016년 세징야는 챌린지(2부리그) 대구FC에 입단해서 2017년 클래식으로 승격했고, 이제 클래식 잔류를 결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 화려한 골 뒤에는 언제나 세징야가 있었고, 세징야가 그라운드에 있고 없음에 따라 대구는 경기력이 달라졌다.

상대 수비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공격수 세징야, 그러니 파울을 가장 많이 당하고 부상위험도 그만큼 높다. 하지만, 세징야는 "피파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패스를 더 많이 하고, 다른 옵션 행동을 많이 해서 잘 극복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인터뷰 내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제 겨우 스물다섯, 스물여덟, 결혼 2년차에 접어들지만 아직은 젊어 2세는 서른 살을 넘긴 후에 계획할 생각이다.

2017년 시즌 초기 부상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의 심정을 물었다. 세징야는 "한국 축구는 스피드가 빠르고 경기 흐름도 빠른데, 부상으로 인해 시즌 초반에 그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아직 통증은 남아있지만 한국의 좋은 약을 먹으면서 후반에는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세징야는 부상으로 경기를 하지 못할 때에도 동료들이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격려해 주고 빨리 낫도록 도와준 것에 매우 감사했다. 그 시간동안 그들로부터 '나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 마음이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세징야는 대구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구FC구단과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특히 조광래 사장님은 아버지처럼 잘 해주고, 자식을 기르듯 잘 보살펴 준다면서 가능하면 은퇴 후에도 대구에 남아 필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클래식 잔류확정까지 상승세를 이어온 대구FC, 하지만 세징야는 아직 목이 말랐다. 대구FC는 내년에 6강(상류스플릿)을 목표로 하지만, 세징야는 언젠가는 대구FC에서 꼭 우승 트로피를 들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니엘리에게 바람을 물었다. 세징야 아내, 아니엘리의 소망은 놀랍게도 '대구에 평생 사는 것'이란다.

아니엘리는 "브라질은 서포터즈가 너무 무섭다. 브라질 관중들은 격한 반응들로 선수들을 위험하게도 하고, 치안도 불안하다. 하지만, 이 곳은 매우 안전하고, 친절해서 너무 좋다"며, "한국인으로 귀화해서 대구에 평생 살면서 브라질은 가끔 다니러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징야 부부는 대구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브라질에 다니러 가면,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 부부는,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단다.

세징야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너무 좋아서 대구 FC에서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었고, 지금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엔젤클럽에 대해서는 그저 '후원해주시는 분'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잘 알게 되었다며, 브라질은 축구의 나라이지만 엔젤클럽과 같은 아름다운 단체는 없는 것 같다며 엄지척을 내세웠다.

이야기가 차고 넘치지만 다음 경기를 위한 연습시간이 임박해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호경 회장은 "내년 연말이면 대구에도 축구전용구장이 생긴다"며 "그 곳에서는 우리 축구도 유럽처럼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요한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징야부부를 11월 28일 천사의날 행사에 정중히 초대했다. 세징야는 기꺼이 천사의 날 행사에 참석하겠다며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대구FC의 역사를 만드는 데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까페 밖으로 나와 대구스타디움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거기, 드높은 가을하늘, 아름다운 단풍, 좋은 나라, 좋은 팀, 좋은 사람들 사이에 행복하게 웃는 세징야 부부가 있었다.

대구FC의 미래! **지역 축구부 탐방**

1. 대구FC 유소년 시스템 소개

"대구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 선수들이 대구FC 유니폼을 입는 것을 꿈꾸도록 만들겠다."

대구FC 조광래 대표이사가 지난 2014년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대구FC는 시민구단이다. 재정이 빠듯한 시민 구단은 좋은 선수, 유명한 선수를 데려오기가 어렵다. 결국 방법은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스타플레이어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구는 지난 해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를 마련하고, 취미반과 연령대별 산하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모든 유소년 선수들이 대구FC와 대구 축구의 '미래'다. 이번 호 대구FC 유소년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래의 스타플레이어'들이 성장하고 있는 대구 지역 초, 중, 고 축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구FC 유소년 시스템의 시작

대구FC가 유소년 육성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7년부터이다. 이 때 처음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소년 축구교실을 개설한 대구는 2009년 경산시 상방동에 '유소년 축구센터'경산점을 개장하고, 현풍고등학교와 협약하여 U-18 클럽을 창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선수 육성을 시작했다.

2011년에는 율원중과 함께 U-15 클럽을 창단했고, U-18(현풍고)이 '제52회 청룡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다. 2014년에는 U-18(현풍고)이 '제40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준우승, 2015년에는 U-15(율원중)가 '제20회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U-12 클럽은 2009년부터 운영해오다 2013년 신흥초와 축구부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선수 육성을 시작했다. 지금은 대구FC에서 12년 간 선수생활을 하고 은퇴한 '원클럽맨'박종진 감독이 신흥초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 해 전국 초등 축구리그 대구권역, 대구시 협회장기에서 우승했고, 올 해 제12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준우승, 2017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그룹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지역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는다.

"꿈은 이루어진다!"대구FC 유소년 시스템으로 꿈을 이룬 선수들

2013년 유소년 클럽 출신 선수가 대구FC에 처음으로 입단하는 결실을 맺었다. 바로 김흥일 선수였다. 김흥일 선수는 대구FC U-18(현풍고) 창단 멤버로 고교 시절 같은 연령대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던 선수다. U-18(현풍고) 졸업 이후 동아대로 진학해 대학 무대 경험을 쌓은 후 대구FC에 입단하게 되었다. 대구FC에서는 23경기에 나섰다.

이후 유소년 클럽 출신 선수들의 프로 진출이 활발히 이어졌다. 2014년에는 남세인, 신창무, 정대교, 2015년에는 서재민, 송영민, 2016년에는 손석용, 조용재 선수가 대구 유니폼을 입으면서 지금까지 총 8명의 선수가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프로 진출에 성공했다.

지금도 대구FC 산하 클럽 유소년 선수들이 각종 지역대회, 전국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대구FC 유소년 클럽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취미반 축구교실인 '리틀빅토'를 거치거나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개테스트에 참가해 실력을 인정받아야한다. 선발될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각종 용품, 훈련 및 대회 참가 경비 등 선수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FC 유소년 시스템의 뿌리 '축구야 놀자'

2013년에는 대구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해 '축구야 놀자'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축구야 놀자!'는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축구 교육을 레크레이션 형태로 일부 변형시킨 유아 체육 프로그램이다. 2015년까지 대구, 경북 소재 약 20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0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구FC 유소년 시스템의 '뿌리'역할을 했다. 2016년 인프라 구축과 사업 재정비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몸도 마음도 튼튼히! 취미반 축구교실 '리틀빅토'

'축구야 놀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면 축구를 배우고 싶거나 취미로 하고 싶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리틀빅토'가 있다.

'리틀빅토'는 6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유소년 축구교실이다. 입문부터 중급 레벨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병행을 통해 존중, 배려, 책임감과 팀워크, 스포츠맨십 등을 배울 수 있어 어린 시절 좋은 습관을 만들고 올바른 자아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FC 유소년 육성의 '베이스캠프'유소년 축구센터

대구FC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인 '유소년 축구센터'도 성장하고 있다. 2014년 경산점을 폐장한 대구FC는 축구전용구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대구 시민운동장 옆 보조구장 자리에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를 건립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있어 접근성이 좋은 이 곳은 대구FC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축구야 놀자, 리틀빅토 등 대구FC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수업 장소이며,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시민들에게 풋살장, 축구장으로 대관(유료)해주고 있어 일주일 내내 축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DAEGU FC
DAEGU FOOTBALL CLUB

태양의 전사들

코치.
베네디토

생년월일	1974년 3월 5일
국적	브라질

주요경력
1993~1995: Esporte Clube Santo André(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6: Sport Club Corinthians Paulista(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7~1998: Associação Portuguesa de Desportos(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9: Alecrim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9~2000: União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1~2002: Esporte Clube São Bent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3: Nacional Atlético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4: Clube Atlético Juventus(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5: Clube Atlético Bragantin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6: Associação Portuguesa de Desportos(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7: Paulista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7: América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7: Clube Atlético Bragantin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8~2014: Clube Atlético Bragantin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14: Criciúma Esporte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15: Goiás Esporte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16: Atlético Clube Goianiense(브라질) 피지컬 코치

전력분석/통역.
이종현

생년월일	1987년 1월 8일
학력	과천초등학교

선수경력
2004~2006 Americano Futebol Clube (브라질)
2007 Marília Atletico Clube (브라질)
2008 Atletico Sorocaba (브라질)
2010년 : 경남FC
2011년 : 인천유나이티드
2012~2014년 : 김해시청 축구단

트레이너.
노현욱

생년월일	1970년 3월 13일
학력	대구보건대학교

주요경력
삼성라이온즈 닥터
한화이글즈 닥터
윌 휘트니스센터 관리팀장

감독.
안드레

생년월일	1972년 11월 16일
국적	브라질

선수경력
1992 ~ 1995년 : Santos Futebol Clube(브라질)
1996 ~ 1997년 : Portuguesa Santista(브라질)
1998 ~ 1999년 : Marília(브라질)
2000 ~ 2002년 : 안양 LG 치타스
2003 ~ 2004년 : Quindao(중국)
2005 ~ 2008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지도자 경력
2008 ~ 2012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코치
2012 ~ 2014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감독대행
2015 ~ 2017년 : 대구FC 코치
2017년 : 대구FC 감독대행

코치.
최원권

생년월일	1981년 11월 8일
신장/체중	175cm/70kg

경력
2000년 : 청소년 국가대표
2003년 : 동아시아 국가대표
2004년 : 아테네 올림픽 국가대표
2000년 ~ 2008년 : FC서울 168경기 출전 3득점 14도움
2009년 ~ 2010년 : 광주상무 50경기 출전 8득점 5도움
2011년 ~ 2013년 : 제주Utd 44경기 출전
2013년 : 대구FC 12경기 출전
2014년 : 대구FC 15경기 출전 1득점
2015년 : 대구FC 2경기

수상
K리그 우승 1회(2000년)
K리그 준우승 2회(2001년), (2002년)
슈퍼컵 우승 1회(2001년)
리그컵 우승 1회(2001년)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 준우승 1회(2002년)

GK코치.
이용발

생년월일	1973년 3월 15일
학력	동아대학교

지도자경력
2009 ~ 2013년 : 연세대학교
2014년 : 인천유나이티드

수상경력
1999 ~ 2002년 : 전경기 무교체 특별상
2000년 : K리그 스포츠 조선 베스트 11

트레이너.
박해승

생년월일	1984년 3월 11일
학력	대구대학교

주요경력
대구FC U-18(현풍고) 트레이너

트레이너.
이대균

생년월일	1990년 8월 8일
학력	대구한의대

주요경력
영덕고등학교 축구부 트레이너
부산외국어대학교 축구부 트레이너
LG트윈스 트레이너 인턴십
신평고등학교 축구부 트레이너

장비담당.
고강훈

생년월일	1994년 8월 16일
학력	계명대학교 스포츠마케팅학과

경력
2013 : 대구FC 크루 2기
2016 : 대구FC 크루 5기
2017 : 대구FC 크루 6기

수상경력
2013 : 대구FC 크루 2기 공로상
2016 : 대구FC 크루 5기 최우수상

GK1. 이양종

등번호	1번
생년월일	1989년 07월 17일
포지션	GK
신장 / 체중	191cm / 86kg

경력

2011년 : 대구FC / 1경기 1실점

2012년 : 대구FC / 2경기 1실점

2013년 : 대구FC / 24경기 35실점

2014년 : 대구FC / 19경기 21실점

2015년 : 대구FC / 1경기

2016년 : 대구FC / 1경기 1실점

2016년 : 대구FC(R리그) / 8경기 7실점

GK21. 조현우

등번호	21번
생년월일	1991년 9월 25일
포지션	GK
신장 / 체중	189cm / 76kg

대표경력

2010년 : U-19 청소년 대표

2010~2011년 : U-20 청소년 대표

2011년 : U-23 올림픽 대표

2011년 : 유니버시아드 대표

2012년 : 덴소컵 대학선발 대표

2015년 :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력

2013년 : 대구FC / 14경기 22실점

2014년 : 대구FC / 15경기 21실점

2015년 : 대구FC / 41경기 49실점

2016년 : 대구FC / 39경기 35실점

GK31. 이현우

등번호	31번
생년월일	1994년 3월 20일
포지션	GK
신장 / 체중	185cm / 72kg

경력

2013:전국 1, 2학년 대학대회

2014:전국 1, 2학년 대학대회 우승

2014:춘계대학연맹전 3위

2015:춘계대학연맹전 3위

2015:U리그 왕중왕전 우승

2016:춘계대학연맹전 3위

수상경력

2014:전국 1, 2학년 대학대회 GK상

2015:U리그 왕중왕전 GK상

GK41. 김현성

등번호	41번
생년월일	1993년 3월 28일
포지션	GK
신장 / 체중	193cm / 87kg

경력

2015~2016 : 서울 이랜드 FC / 1경기 4실점

2016년 : 서울 이랜드 FC(R리그) / 10경기 5실점

DF2. 오광진

등번호	2번
생년월일	1987년 6월 4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72cm / 64kg

경력

2009~2011년 : 울산현대

2011~2012년 : 경남FC

2012~2013년 : 김해시청 / 21경기

2013~2015년 : 수원FC / 44경기 2도움

2016년 : 대구FC / 7경기

2016년 : 대구FC(R리그) / 4경기

DF3. 김동우

등번호	3번
생년월일	1988년 2월 5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9cm / 87kg

경력

2010~2012: FC서울 47경기

2013~2014: 경찰(현 아산) 38경기 4득점

2014~2017: FC서울 38경기 1득점 1도움

수상경력

리그컵 우승: 2010

K리그 클래식 우승: 2010, 2012, 2016

DF4. 박태홍

등번호	4번
생년월일	1991년 3월 25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5cm / 77kg

대표경력

2007년 : U-16 대표팀

2008~2009년 : U-18 대표팀

2010~2011년 : U-20 대표팀

경력

2011~2013년 : 요코하마FC(일본) / 28경기

2013~2014년 : 요코하마FC(홍콩) / 17경기

2014년 : 카탈레 도야마(일본) / 12경기

2015년 : 요코하마FC(일본) / 35경기 1득점

2016년 : 대구FC / 38경기 1득점

DF5. 홍정운

등번호	5번
생년월일	1994년 11월 29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7cm / 76kg

대표경력

2015년 : U-22 대표팀

2015년 : 제28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축구 은메달

경력

2016년 : 대구FC / 20경기

2016년 : 대구FC(R리그) / 7경기

DF6. 한희훈

등번호	6번
생년월일	1990년 8월 10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3cm / 78kg

경력

2013~2014 : 에히메FC(일본) / 34경기2득점

2015 : 토치기SC(일본) / 31경기 1득점

2016 : 부천FC / 40경기 3득점

수상경력

2011 : 전국대학축구대회 우수 선수상

DF16. 김동진

등번호	16번
생년월일	1992년 12월 28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77cm / 74kg

국가대표경력

2008년 : AFC U-16 챔피언십 본선 대표

2009년 : FIFA U-17 월드컵 본선 대표

경력

2014년 : 대구FC / 10경기

2015년 : 대구FC / 18경기 1도움

2016년 : 대구FC / 36경기

DF19. 박세진

등번호	19번
생년월일	1995년 12월 15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76cm / 67kg

대표경력

2014 : U-19 대표팀

수상경력

2015 : U리그 권역 우승

2015 :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

경력

2016년 : 대구FC / 30경기 2득점 4도움

DF20. 황재원

등번호	20번
생년월일	1981년 4월 13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6cm / 80kg

대표경력

2008~2011년 : 국가대표팀 11경기 1득점

경력

2004~2010년 : 포항스틸러스 / 111경기 8득점 2도움

2010~2011년 : 수원삼성 / 18경기 2득점

2012~2013년 : 성남일화 / 9경기 1득점

2015년 : 충주험멜 / 23경기 2득점

2016년 : 대구FC / 27경기 2득점 1도움

수상경력

2007년 : K리그 시즌 베스트 11 선정

DF22. 정우재

등번호	22번
생년월일	1992년 6월 28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79cm / 70kg

경력

2011~2012년 : 츠바이겐 가나자와

2014년 : 성남FC / 2경기

2015년 : 충주험멜 / 26경기 1득점 1도움

2016년 : 대구FC / 37경기 3득점 3도움

DF26. 김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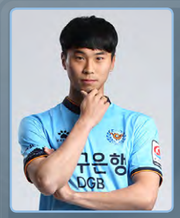
등번호	26번
생년월일	1996년 8월 4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7cm / 74kg

대표경력

2014년 : U-18 대표팀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2경기



DF30. 김진혁

등번호	30번
생년월일	1993년 6월 3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7cm / 78kg

대표경력

2012년 AFC U-19 대표팀
2014년 덴소컵 대학 선발팀
2014년 U-21 중국 4개국 친선대회 대표팀

수상경력

2012년 U리그 권역 우승
2012년 제 43회 전국 추계 대학연맹전 3위
2013년 제 44회 전국 추계 대학연맹전 우승
2013년 U리그 권역 준우승
2014년 제 50회 전국 춘계 대학연맹전 우승
2014년 U리그 권역 우승

경력

2015년 : 대구FC / 12경기
2016년 : 울산현대미포조선 / 21경기 1득점 2도움

DF35. 서재민

등번호	35번
생년월일	1997년 12월 4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69cm / 60kg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5경기 2도움

DF39. 황준석

등번호	39번
생년월일	1996년 3월 19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8cm / 72kg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2경기 1득점

DF43. 조귀범

등번호	43번
생년월일	1996년 8월 9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4cm / 79kg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8경기 1득점

DF44. 박시윤

등번호	44번
생년월일	1993년 5월 2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73cm / 62kg

경력

2016년 : 충주험멜(R리그) / 14경기

MF8. 김선민

등번호	8번
생년월일	1991년 12월 12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68cm / 65kg

경력

2013 : 울산현대미포조선 / 16경기 11득점 3도움

2014 : 울산현대 / 18경기

2015 : FC안양 / 32경기 6득점 2도움

2016 : 대전시티즌 / 30경기 4득점 3도움

대표경력

2011 : 대한민국 U-20 대표팀

MF10. 황순민

등번호	10번
생년월일	1990년 9월 14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78cm / 69kg

경력

2012~2015 : 대구FC 84경기 11득점 7도움

2016~2017 : 상주상무 16경기 1득점

프로통산 100경기 12득점 7도움움

수상경력

2010 : 대한민국 U-23

MF13. 우상호

등번호	13번
생년월일	1992년 12월 7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74cm / 74kg

경력

2006-2009 : 가시와레이솔 유스

2009-2014 : 메이카이대학

2015 : OFK Petrovac(몬테네그로 1부) / 29경기

2016년 : 대구FC / 17경기 1득점

MF25. 민경민

등번호	25번
생년월일	1996년 6월 4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83cm / 65kg

경력

2016 : U리그 권역 우승

MF27. 최수현

등번호	27번
생년월일	1993년 12월 9일
포지션	MF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2경기

MF28. 이해웅

등번호	28번
생년월일	1998년 11월 20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74cm / 68kg

MF29. 류재문

등번호	29번
생년월일	1993년 11월 8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84cm / 72kg

대표경력
2011년 : U-18 대표팀
2011년 : U-18 AFC 챔피언십 예선
2012년 : U-19 스페인 발렌시아 친선대회
2012년 : U-19 AFC 챔피언십 우승
2013년 : U-20 대표팀
2014년 : 덴소컵 대학 선발팀

수상경력
2012년 : 제 48회 전국 춘계 대학연맹전 3위
2012년 : 제 43회 전국 추계 대학연맹전 우승
2012년 : U리그 챔피언십 3위
2013년 : 제 49회 전국 춘계 대학연맹전 3위
2013년 : U리그 권역 우승
2013년 : U리그 챔피언십 우승
2014년 : U리그 권역 우승

경력
2015년 : 대구FC / 36경기 6득점 3도움
2016년 : 대구FC / 5경기

MF34. 홍승현

등번호	34번
생년월일	1996년 12월 28일
포지션	MF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4경기 3득점 4도움

MF36. 박한빈

등번호	36번
생년월일	1997년 9월 21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82cm / 75kg

대표경력
2014년~2015년 : U-18 대표팀
2016년 : U-19 대표팀
2017년 : U-20 대표팀

수상경력
2016년 : JS컵 MVP

경력
2016년 : 대구FC / 6경기
2016년 : 대구FC(R리그) / 4경기 3도움

MF40. 조용재

등번호	40번
생년월일	1998년 1월 6일
포지션	MF
신장 / 체중	173cm / 68kg

FW7. 전현철

등번호	7번
생년월일	1990년 7월 3일
전소속	부산아이파크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5cm / 72kg

경력
프로통산 112경기 12득점 3도움
2016~2017: 부산아이파크 19경기 2도움
2013~2015: 전남드래곤즈 71경기 9득점 1도움
2012: 성남일화(현 성남FC) 22경기 3득점

FW9. 주니오

등번호	9번
생년월일	1986년 12월 30일
국적	브라질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87cm/85kg

경력
2009 : ABC(브라질 전국 2부) / 20경기 11득점
2010~2011 : Beerschot A.C.(벨기에 1부) / 18경기 7득점
2011~2012 : Lausanne-Sport(스위스 1부) / 20경기 4득점
2012 : Guarani(브라질 전국 2부) / 9경기 1득점
2013 : Tombense(브라질 미나스 주 리그) / 13경기 8득점
2013 : América RN(브라질 전국 2부) / 15경기 3득점
2014 : Tombense(브라질 미나스 주 리그) / 11경기 2득점
2014 : América Mineiro(브라질 전국 2부) / 17경기 2득점
2015 : Oeste(브라질 전국 2부) / 41경기 7득점
2016 : Pattaya United(태국 1부) / 29경기 20득점

FW11. 세징야

등번호	11번
생년월일	1989년 11월 29일
국적	브라질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7cm / 74kg

경력
2010 : Osvaldo Cruz(브라질) / 8경기 6득점
2011~2012 : União Barbarense(브라질) / 40경기 13득점
2013 : Bragantino(브라질) / 14경기 2득점
2013 : União Barbarense(브라질) / 15경기 5득점
2013 ~ 2014 : Bragantino(브라질) / 49경기 7득점
2014 ~ 2015 : Clube Atlético Mineiro(브라질) / 12경기
2015 : Ponte Preta(브라질) / 28경기 4득점
2016 : 대구FC / 36경기 11득점 8도움

FW14. 신창무

등번호	14번
생년월일	1992년 9월 17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0cm / 67kg

수상경력
2010년 : 고교 챌린지 리그 도움 1위
2012년 : 제8회 전국대학축구대회(1·2학년) 준우승
2012년 : 제8회 전국대학축구대회(1·2학년) 우수선수

경력
2014년 : 대구FC / 12경기 1도움
2015년 : 대구FC / 10경기
2016년 : 대구FC / 31경기 1득점

FW15. 한재웅

등번호	15번
생년월일	1984년 9월 28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8cm / 73kg

대표경력
2000 : U-16 대표팀
2003 : U-20 대표팀

경력
2003~2008 : 부산아이파크 / 21경기 2득점
2008~2011 : 대전시티즌 / 79경기 10득점 4도움
2012 : 전남드래곤즈 / 24경기 1도움
2013 : 인천유나이티드 / 3경기
2013 : 부리람 유나이티드
2014 : 울산현대 / 7경기 1도움
2015 : 홍콩레인저스
2016 : 대구FC / 15경기

FW17. 김경준

등번호	17번
생년월일	1996년 10월 1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8cm / 70kg

경력
2015 : U리그 권역 우승
2015 :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2016 : 전국체전 우승
2016 : U리그 권역 우승
2016 : 추계 1, 2학년 대학대회 우승
2016 : 전국추계대학연맹전 우승

수상 경력
2016 : 추계대학연맹전 득점왕
2016 : 추계 1, 2학년 대회 득점왕
2016 : U리그 권역 득점왕

FW32. 정치인

등번호	32번
생년월일	1997년 8월 21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82cm / 71kg

수상 경력
2015년 : 전국체전 준우승

대표 경력
2016년 : U19 대표팀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1경기 6득점

대구FC 태양의 전사들

FW37. 김대원

등번호	37번
생년월일	1997년 2월 10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2cm / 64kg

대표경력

2014년~2015년 : U19 대표팀

경력

2016년 : 대구FC / 6경기 1득점

2016년 : 대구FC(R리그) / 13경기 8득점 5도움

FW38. 정승원

등번호	38번
생년월일	1997년 2월 27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0cm / 68kg

경력

2016년 : 대구FC(R리그) / 15경기 7득점 3도움

FW42. 손석용

등번호	42번
생년월일	1998년 9월 4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79cm / 72kg

수상경력

2016 : K리그주니어전기리그 득점1위

대표경력

2016 : U-18 대표팀

FW45. 정충엽

등번호	45번
생년월일	1998년 6월 2일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84cm / 71kg

수상경력

2015 : 대통령금배 축구대회 우승

2015 : 전국체전 동메달

2016 : 대통령금배 축구대회 우승

FW99. 에반드로

등번호	99번
생년월일	1987년 9월 26일
국적	브라질
포지션	FW
신장 / 체중	186cm / 79kg

경력

2008~2009 : Belenenses(포르투갈 1부)

2010 : União São João Esporte Clube(브라질 3부)

2010 : Sociedade Esportiva do Gama(브라질 3부)

2011 : São Carlos Futebol Clube(브라질 상파울루주 1부) 19경기 9득점

2012~2013 : Al-Jahra SC(쿠웨이트 1부)

2014 : Aparecidense(브라질 고이아스주 1부) 11경기 4득점

2015 : Oita Trinita(일본 2부) 22경기 3득점

2016 : FC Gifu(일본 2부) 23경기 5득점

*리그는 해당 연도 기준 / 일부 경력만 표기

DAEGU FC
DAEGU FOOTBALL CLUB

대구FC 선수단 기록

감독 : 안드레

포지션	등번호	이름	경기기록(K리그 클래식)	경기기록(R리그)
GK	1	이양종	3경기 4실점	13경기 19실점
DF	2	오광진	20경기	2경기
DF	3	김동우	14경기	-
DF	4	박태홍	10경기 1도움	1경기
DF	5	홍정운	6경기	6경기
DF	6	한희훈	36경기 1득점	-
MF	7	이재권	11경기	3경기
FW	7	전현철	11경기 2득점 1도움	4경기 2득점
MF	8	김선민	33경기 8도움	-
FW	9	주니오	16경기 12득점 1도움	1경기
MF	10	호드리고	1경기	-
MF	10	황순민	8경기 1도움	1경기
FW	11	세징야	27경기 7득점 7도움	-
MF	13	우상호	17경기	10경기
MF	14	신창무	19경기 2득점 1도움	6경기 1득점
DF	15	한재웅	-	2경기
MF	16	김동진	21경기	5경기
FW	17	김경준	3경기	18경기 4득점 1도움
DF	19	박세진	4경기	11경기 1득점 1도움
DF	20	황재원	9경기	1경기
GK	21	조현우	35경기 48실점	-
DF	22	정우재	33경기 1득점 5도움	-
FW	23	주한성	-	-
MF	25	민경민	-	7경기
DF	26	김우석	12경기 1득점	10경기 1득점 1도움
MF	27	최수현	-	15경기
MF	28	이해웅	1경기	10경기
MF	29	류재문	23경기 1득점 3도움	4경기 2득점
DF	30	김진혁	32경기 4득점	3경기 1득점
GK	31	이현우	-	1경기 1실점
FW	32	정치인	-	17경기 4득점
FW	33	레 오	19경기 7득점	-
MF	34	홍승현	22경기 1도움	6경기 1득점 2도움
DF	35	서재민	-	20경기 1득점
MF	36	박한빈	17경기	10경기 1도움
FW	37	김대원	10경기 1도움	16경기 7득점 5도움
FW	38	정승원	9경기	20경기 5득점 4도움
DF	39	황준석	-	15경기
MF	40	조용재	-	6경기
GK	41	김현성	-	6경기 9실점
FW	42	손석용	-	9경기 3득점 2도움
DF	43	조귀범	-	19경기 1득점 1도움
DF	44	박시윤	-	13경기 1득점 1도움
FW	45	정충엽	-	9경기
DF	77	프라니치	2경기	-
FW	99	에반드로	29경기 11득점 2도움	-

Half time talk

"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항상 책에서 얻었다."
-벨 훅스

봄이 가고 축구는 돌아오다

축구의 나라를 가다

축구의 나라를 가다 ② 스페인

가우디의 스폰서이자 그의 예술을 이해한 친구였던 구엘의 이름을 딴 구엘공원. 구엘이 가우디에게 의뢰해 만들었다. 구엘공원에서 내려다본 바르셀로나 전경

◆ 스페인

세계 어느 나라나 지역감정은 있기 마련이다.
지역감정이란 단어가 주는 거부감을 살짝 뒤집어 놓으면 애향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 지역이기주의가 편승되면 그야말로 망국적 지역감정이 되긴 하지만 말이다.
각설하고 애향심이 다소 지나칠 정도의 지역감정이 심하기로 소문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스페인이다. 자신들의 고유 언어가 있는 지역만 4개다.
수도 마드리드가 있는 카스티야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빌바오가 있는 북부 바스크, 북서부 갈리시아.
이 중 지역감정이 특히 안 좋은 사이가 카스티야와 카탈루냐이지만 실제로 카스티야와 다른 지역은 모두 좋지 않다.
특히 카스티야와 카탈루냐는 할 때마다 전쟁이란 평가를 듣는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 축구경기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선수 스카우트도 자신의 지역 출신으로만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해는 65년 만에 레알 마드리드가 카탈루냐주 출신 선수를 세 명이나 보유하게 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스페인이 아니라 '카탈루냐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애향심이 강한 카탈루냐는 15세기 카스티야에 합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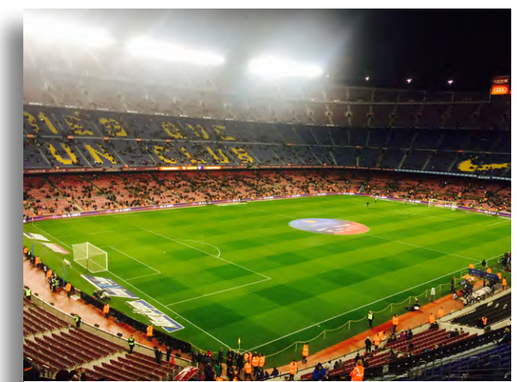
이후 끊임없이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면서 20세기 초에는 자치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코독재정권이 권력을 잡은 1939년부터 36년 동안 지역감정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렸다.
특히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벌어진 스페인 내전 당시 바스크도 그랬지만 카탈루냐지역 역시 자체 언어를 쓰지 못하도록 한데다 학자나 젊은 지식층이 이유 없이 붙잡혀가 무참히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감정의 골은 오래전부터 예견돼 오던 것이다.
원래 스페인 즉 에스파니아는 여러 개의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 중심 두 축이 마드리드를 거점으로 한 카스티야 왕국과 바르셀로나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아라곤 왕국이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속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이 두 왕국은 1469년 카스티야 여왕 이사벨 1세와 아라곤 국왕 페르난도 2세의 결혼을 통해 합병돼 스페인 왕국으로 탈바꿈했으며 이베리아 반도의 최강자로 군림하면서 스페인 통일을 달성한다.
문제는 합병 이후 두 왕국의 왕이 공동 정권으로서 같은 힘을 갖고 정치력을 행사했지만 초기만 그랬을 뿐 통일 정권의 왕의 사후엔 카스티야 왕국 혈통에게 스페인 왕위가 계승되면서 옛 카탈루냐왕국 즉 지금의 바르셀로나지방은 점차 소외되기 시작한다.

이 갈등이 프랑코독재 정권 시절 불거져 나온 것이다.
여기엔 두 지역의 사회계층 차이도 한 몫 했다. 즉 당시 공업이 발달했던 카탈루냐 지방은 노동자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유입됐다. 하지만 마드리드를 포함한 카스티야 지방은 왕정의 중심에 오래 있어서 귀족층이 많아 계급간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었다. 스페인내전도 이런 계급간의 충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내전은 결국 프랑코가 지휘하는 우파 세력 즉 카스티야(마드리드) 지역의 승리로 끝났고 이후 스페인은 우파 프랑코 정권의 독재가 지속된다.
지금은 모두 과거의 역사로 남겨졌지만 두 지역의 지역감정 특히 축구전쟁은 구단의 이름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노동자계급이 많았던 카탈루냐의 FC바르셀로나는 대구FC와 마찬가지로 시민구단인 반면 왕정의 중심에서 보수 우파가 뿌리를 내렸던 카스티야의 레알 마드리드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 구단 이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레알 즉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팀 즉 로열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감정의 골도 있지만 스페인 17개 주 가운데 국내총생산과 세금의 20%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만도 상당하다.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왜 남(카스티야)에게 주냐'는 인식 때문이다.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때마다 혈전을 벌이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1일 카탈루냐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에 참여한 43% 주민 중 90%가 분리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비율만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분리 독립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참여자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찬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분리 독립에 대한 의사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투표는 치러졌지만 카탈루냐의 독립은 현실적으론 어려워 보인다.
당장 독립이 인정될 경우 EU에서의 자동 탈퇴로 인한 경제적 불편, 국경 이동의 제한 등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카스티야의 독립에 대한 끝없는 도전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멈추지 않은 전쟁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가우디가 사랑한 도시 바르셀로나

카탈루냐의 중심 바르셀로나. 성수기가 따로 없을 정도로 항상 관광객들로 붐빈다. 최근 발생한 테러가 도시 이미지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지만 도시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전하다. 그 중심에 가우디(1852~1926년)가 있다.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다. 마드리드가 프라도미술관으로 먹고 산다면 바르셀로나는 가우디가 그 몫 배의 역할을 한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가족성당이라고 하는 이 성당은 가우디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맡은 1883년 이후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다. 당초 200년 정도 예상했지만 지금은 2026년 가우디 사후 100년이 되는 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우디는 구리세공장의 집안에서 태어나 17세 때부터 건축을 공부했다. 1878년 바르셀로나 건축학교 졸업 후 많은 독창적인 작품을 남겼다.

가우디의 또 다른 대표작은 구엘공원이다. 가우디의 후원자였던 벽돌제조업자 구엘 남작의 이름을 딴 공원이다. 구엘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예술적 동료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다. 가우디보다 8년 앞서 죽을 때까지 40년 간 그들의 우정은 지속됐다. 이들은 바르셀로나 미래의 주거복합단지와 도시의 아이콘이 될 건축물에 대해서 쉼 없이 토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카탈루냐인으로서 20세기 여명이 시작되는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의 중심도시로서의 우뚝 솟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4년에 걸쳐 지어진 구엘공원은 두 사람의 우정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공원은 직원 몇 명이 천으로 된 라인을 쳐놓고 무료존과 유료존을 구분해 놓았다. 타일로 만들어진 조형물과 파도동굴 그리고 기념품숍 등 구엘공원의 하이라이트는 유료존 내에 있다.
무료존에서도 바르셀로나 도심 전망과 가우디박물관 입장이 가능하다.



▼ **캄프 누(NOU CAMP)**
FC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프 누는 축구의 대륙 유럽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올해로 만들어진지 50년이 됐다. 관중석은 9만9천여 개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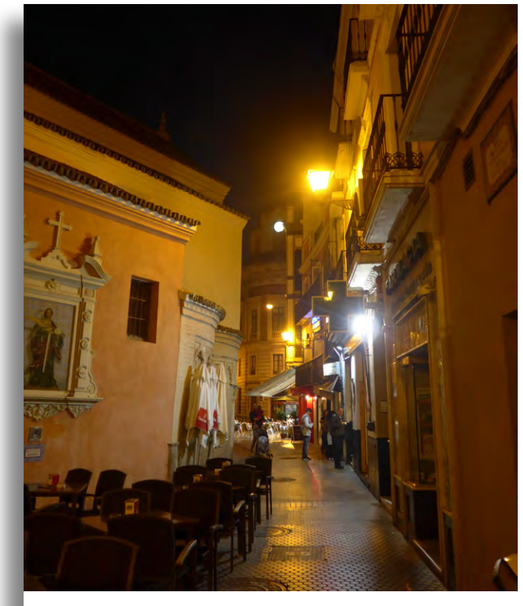
▼ **산티아고 베르나베우(SANTIAGO BERNABEU)**
레알마드리드의 축구 전용구장. 1944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1947년 연말에 문을 열었다. 수용인원은 8만여명. 1957년, 1969년, 1980년 유럽컵 결승전을 치렀다.

① 구엘공원 내부 ② 세고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알카사르, 월트디즈니의 '신데렐라'에 나오는 성의 모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③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세비야 대성당 ④ 구엘공원의 명물인 도마뱀
⑤ 세비야 랜드마크인 메트로폴 파라솔 ⑥ 바르셀로나의 재래시장 보케리아. ⑦ 마드리드 도심 풍경

기억 속 구엘공원은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었고 누구나 무료로 들어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유료로 바뀐 지가 3년 정도 됐다고 한다.
공원보호와 보수를 위해 돈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유료존과 무료존의 어정쩡한 구분은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가우디가 살아있었다면 펄쩍 뛰었을 텐데. 안타까웠다.
구엘공원이 도심의 끝자락에 있다면 1907년 완공된 가우디의 카사밀라와 카사바트요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가우디의 작품이다.
이 건물들이 있는 그라시아 거리에서 남쪽으로 걸어 내려가면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붐비는 람블라스거리에 도착한다. 길바닥에는 후안 미로가 디자인한 모자이크가 깔려 있다. 노천카페도 많고 마임과 같은 즉흥 공연도 많다.
람블라스 거리에서 바다쪽인 드라사네스 역방향으로 가다 보면 재래시장인 '라 보케리아'가 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음식인 파에야를 비롯해 각종 카페와 선물가게를 구경하다가 내려가면 돼지 넓적다리 햄인 하몽이 입구 정육점에 걸려 있는 보케리아 재래시장을 만난다.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시장이다.
입구에서 일행 4명과 여행을 온 어떤 할머니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찾는 걸 봤다. 하루에 세 번이나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사람도 있는 람블라스 거리는 조심하는 것 이상 방법이 없다.
람블라스거리의 끝엔 콜럼버스동상이 있다.
이탈리아인인 콜럼버스의 동상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건 이유가 있다.
지금 같으면 벤처사업가인 콜럼버스의 여행경비를 후추가 필요했던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아메리카대륙을 인도로 알았던 콜럼버스의 신세계 항해가 시작된 것이다.
콜럼버스동상 앞이 바로 요트천국인 벨 항구다.

◆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세비야성당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의 배경인 세비야는 마드리드에서 동남쪽으로 538㎞ 떨어져 있다. 8개주가 포함된 안달루시아 자치지역의 수도다.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크며 11~12세기 무슬림왕국 시절의 대표적 도시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기도 한 세비야는 1492년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교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인 세비야대성당을 둘러보기 위해선 대구의 동성로와 같은 중심부의 랜드마크인 메트로폴 파라솔(세비야 버섯) 근처에 숙소를 잡으면 편리하다. 불야성을 이루는 주변 환경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는 있지만 맛집도 많고 미술관에서부터 성당까지 모두 걸어다닐 수 있다. 메트로폴 파라솔 계단 아래서 파는 군밤을 먹으면서 걸으면 도심산책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진 세비야 대성당은 원래 알모아데 모스크였다. 이 모스크 즉 이슬람사원을 토대로 15세기초 착공됐으며 완공되는 데에만 100년 이상이 걸렸다.
스테인드 글래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맞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이 성당 안에는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다. 성당 주위는 관광객을 위한 마차가 늘어서 있고 주변의 복잡한 골목엔 지역 토산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특히 투우로 유명한 곳인 만큼 황소나 투우사 등을 주제로 한 조각물들이 많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은 바티칸시국의 성베드로성당이고 두 번째는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이다. 찾는 이들이 가장 많은 건 역시 성베드로성당이고 두 번째는 멕시코시티의 과달라하라 대성당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몇 번째'라고 손에 꼽는 곳이 있다는 건 그 곳의 자랑일 수 밖에 없다.



▼ 세비야 밤 풍경. 세비야에는 이런 좁은 골목에 가게와 카페들이 즐비하다.

◆ 신데렐라성이 있는 세고비아

마드리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한 시간 가량 가면 월트디즈니 신데렐라 성의 모델이 되는 알카사르성이 있는 작고 예쁜 도시가 있다.
바로 세고비아다. 기타 브랜드 세고비아가 유래된 곳은 아니다. 기타 브랜드는 위대한 연주자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이름을 딴 것이다. 물론 '아름답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도시 세고비아는 여러 시대, 여러 인종, 여러 계층들이 함께 한 도시가 어떤지를 보여준다. 기독교인, 무어인, 유대인이 함께 살았고 같이 일했다. 그들의 문화가 녹아내린 건축물들이 아직도 발길을 멈추게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수도교다. 이 수도교는 현존하는 로마시대 수도교 중 가장 보존 상태가 훌륭하다. 과다라마 산맥에 있는 프리오강의 강물을 평균 경사도 1도로 운하를 통해 18㎞ 떨어진 세고비아까지 이 수도교로 보냈다.
문외한이 보더라도 그 기술력이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이 수도교는 안타깝게도 공식 기록물이 없다.
다만 이 수도교의 회랑의 전체 윤곽과 건축 기법은 서기 38년~52년에 건설된 로마의 클라우디아 수도교와 형태상 유사하다는 것과 건축시기가 서기 50년 쯤 혹은 로마 트라야누스 황제 재위기간(98~117년)중인 것만 알려져 있다.
하나 안타까운 점은 100여년 전에 16세기에 돌로 만들었던 수관을 콘크리트로 교체했다는 점이다. 그 전에는 나무로 된 수관이었다. 마차에서 큰 차량이 수도교 인근을 지나가면서 균열이 발생해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20세기 초까지 이 수도교로 높은 지대에 물을 공급했다. 128개에 달하는 2층 아치로 이뤄져 있으며 전체길이는 813m, 최고 높이는 30m다. 아치 윗단 사이사이에는 성인조각상이 있다.
세고비아의 또 하나의 명소인 알카사르는 역시 로마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12,13,19세기에 확장, 복원됐다. 80m 높이의 망루, 궁전 등이 갖춰져 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지만 수많은 전쟁에선 요새로 사용됐다.

▼ 서기 50년 무렵에 건설된 세고비아의 로마시대 수도교. 2층 아치로 된 인상적인 이 건축물은 놀랄 만큼 잘 보존돼 있다.

사랑과 휴머니즘을 사진으로 실천한 사진작가 유진스미스(1918.12.20.-1978.10.15.)

현대사진예술의 거장을 만나다.

두 번째 이야기

"사진이란 기껏해야 하나의 나지막한 목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이루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여 지각으로 매개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 모든 것은 바라보는 사람에게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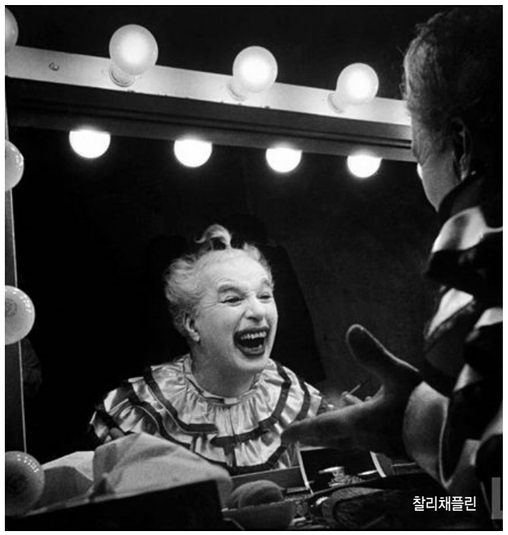
어떤 사진들은 그것들이 사색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기도 한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우리 중의 많은 사람에게 이성의 소리를 듣게 하고, 이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며, 때로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찾아내도록 인도해 갈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생활방식이 그들에게 낯설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연민을 느낄 것이다. 사진은 하나의 작은 목소리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진은 잘 구성하기만 하면 그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다."

1918년 미국 캔자스 주 위치토 출생인 유진스미스는 보도사진의 한길만을 걸어간 사진가이다. 고교시절 사진에 입문해. 1936년 노트르담대학에 입학했으나 1년 만에 그만두고 보도사진가로의 꿈을 위해 뉴욕으로 떠난다. 당시 미국 사진계는 라이프지의 탄생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사진잡지들 덕에 포토 저널리즘 시대가 펼쳐진 시기이다. 즉 문자언어에 의한 '읽는다.'라는 행위가 영상언어와 결합되어 '보는 것'을 추가시켜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데 큰 몫을 한 셈이다. 열여덟이라는 어린 나이에 뉴스위크지의 사진기자가 된 유진스미스는 1939년 라이프지로 직장을 옮겨 1942년까지 활동하며 보도사진가로서 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해 누구나 부러워하는 라이프지를 나온 그는 퍼레이드라는 주간지의 핵심 사진기자가 된다. 잡지에 실린 그의 기록 사진들이 독자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 또한 당대 최고의 보도사진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23살에 불과했다.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플라잉지의 특파원으로 일한 그는 1944년 다시 라이프지의 종군 사진가로 태평양 전선에 참전한다. 그리고 사이판에서 '유일한 생존자'를 촬영하게 된다.



찰리채플린

스페인 마을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유일한 생존자'는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일본군은 사이판의 천연적인 지형을 이용해 크고 작은 동굴들을 요새로 무장하고 생활했다. 그러나 이 사이판이 1944년 7월 7일에 미군의 맹공 앞에 완전히 함락되고 유일한 생존자는 이때 촬영된 것이다. 미군의 화염병사기가 내뿜은 화염으로 인하여 초토화 된 사이판의 한 동굴에서 수백 명의 일본군 병사들과 민간인들 시체 가운데 유일하게 숨결이 붙어 있는 작은 생명을 미군 병사가 발견해 극적으로 구출되는 순간이었다. 이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사진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감동적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전쟁이 죽고 죽이는 비인간적인 행위지만 그 속에서도 어린 생명을 소중히 하는 군인의 모습은 역설적이면서도 또한 진한 인간애를 보여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생존자

'스페인 마을'이란 작품을 발표한 그해에는 U.S. 카메라상을 받기도 한다.

1945년 오키나와 전투의 전선을 취재하다가 포탄에 부상을 당한 그는 2년 동안의 치료를 마치고 1947년 라이프지로 되돌아온다. 55년까지 라이프지에 머물며 수많은 대표작(시골의사, 스페인 마을, 조산원, 자비의 사람-아프리카의 슈바이처)을 발표한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라이프지 편집부와의 마찰로 다시금 라이프지를 그만두게 된다. 이유인즉슨 슈바이처 박사를 평범한 인간으로서 표현해 그의 생명 경외 정신,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본인의 뜻을 무시하고 편집자가 마음대로 사진을 선별하고 트리밍과 레이아웃까지 고쳐 슈바이처 박사를 성인(聖人)으로서 보도함 해 작가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이다.

슈바이처 박사

피츠버그

라이프지를 나온 그는 자유 기고가 가능한 매그넘 사진집단에 입단한다. 1956년과 57년 두 해 동안 구겐하임 재단의 기금을 받은 그는 야심작 피츠버그를 촬영한다.

59년 매그넘 사진집단을 탈퇴하고, 61년 일본 히타치 제작소의 초청으로 약 1년에 걸쳐 공장촬영을 마무리한다.

68년 사진집 유진스미스를 출판했으며, 71년에는 그의 사진 활동을 마무리 짓는 대대적인 회고전을 뉴욕에서 가졌다. 이 회고전은 일본에서까지 전시되었는데, 이때 일본에 건너간 그는 3년간 머물면서 미나마타병을 심층취재 하게 된다.

59년 매그넘 사진집단을 탈퇴하고, 61년 일본 히타치 제작소의 초청으로 약 1년에 걸쳐 공장촬영을 마무리한다.

68년 사진집 유진스미스를 출판했으며, 71년에는 그의 사진 활동을 마무리 짓는 대대적인 회고전을 뉴욕에서 가졌다. 이 회고전은 일본에서까지 전시되었는데, 이때 일본에 건너간 그는 3년간 머물면서 미나마타병을 심층취재 하게 된다.

1975년 뉴욕의 국제사진센터에서 미나마타병의 진상을 깊이 파헤친 사진전을 열고 아울러 사진집도 펴냈다. 그 후 1978년 10월 죽기까지, 애리조나대학의 사진창조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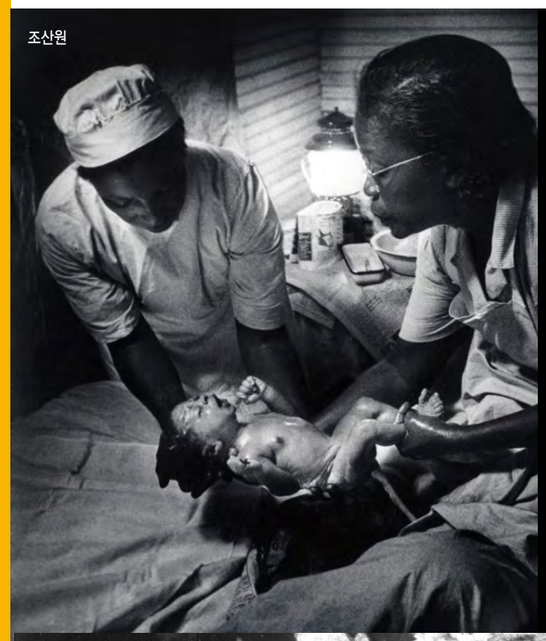
미나마타병

유진 스미스, 그의 사진적 공간은 가난하고 낮은 밑바닥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의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밝음으로 도약하려는 몸부림이 도사리는 희망이 가득한 어둠이다. 또한, 이미지가 강렬한 점이다. 그의 사진은 하나같이 보는 이로 하여금 몸을 조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해 준다. 그 까닭은 그의 사진이, 대상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일치의 모색이 아니라 부딪치고 뚫고 헤쳐나가는 생명의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진들은 분위기나 묘사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진에는 아픔과 쓰라림이, 그리고 피맺힘이 있다.

그의 사진에 중심은 언제나'사랑'이란 테마를 가지고 있다. 본디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생존경쟁의 각축장에서 인간은 인간에 대해 증오하고 종말적인 심판의 불이 쏟아질 것만 같은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끝내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굳건한 믿음을 그는 사진으로 고백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례가 〈시골의사〉 〈조산원〉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등이다.

지방에 묻혀서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골 의사의 박애정신과 불쌍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흑인 조산원의 봉사정신, 그리고 아프리카의 원시림 속으로 뛰어들어가 원주민들과 삶을 함께하면서 생명 경외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슈바이처를 담은 사진들은 실로 감동적이다.

시골의사


조산원

유진 스미스는 자신이 스스로 이상주의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상이란 공허한 공상과는 다른 것이다. 어디까지나 현실 속에 굳건히 뿌리를 박고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에 부딪혀도 꺾이지 않고 나아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상의 세계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기에 이상주의자에게 있어서 현실은 가시밭이다. 현실 속에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은 스스로 고생을 짊어지는 것이다. 유진 스미스의 사진세계는 이러한 몸부림을 영상으로 정착시킨 기록들이다. 현실과 이상은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먼 것이다. 이것을 하나로 좁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유진 스미스의 사진세계는 이에 대한 위대한 도전의 기록이다.

대구일보 사진부 기자 김 진 홍

천국의 정원으로 가는 발걸음

치과 안티에이징 치료
라미네이트에 관하여…

주름이나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안티에이징 치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젊어지기 위한 노력들과 이에 맞는 새로운 치료법들의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관련 의료시장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특별히 얼굴부위에 집중된 안티에이징 치료는 주로 피부의 톤이나 결 그리고 잡티 등을 없애기 위한 치료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얼굴의 피부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과 현재의 삶을 보여주는 시금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피부만 밝아진다고 해서 젊어 보일까요?

옛부터 미인의 조건으로 선조들은 백옥같은 피부와 더불어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서양에서도 17세기, 18세기의 유명한 화가들 작품을 보면 대부분의 여인들이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이것은 더위를 식히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의 못난 앞니를 가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과거엔 구강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고 치과치료가 원시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가 빠진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복할 방법이 없어서 매우 보기 흉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젊은 여성들부터 나이든 여성들까지 외출 시 부채는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부가 아무리 깨끗하고 백옥같이 투명하다고 해도 치아가 노화되어 있다면 안티에이징은 이미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지런하지 않은 치아 뿐 아니라 누렇게 변색되거나 마모되어 있는 치아, 부분적으로 파절되어 있는 치아, 주변치아와 조화롭지 않은 티가 나는 보철물, 보철물 주변의 까만 띠가 비춰 보이는 경우 등… 상당히 많은 앞니들에서 안티에이징과 역행하는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그러므로 안티에이징을 얼굴 전체로 확장했을 때 치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할 요소입니다.

치과 안티에이징 치료를 전문적인 용어로 치과 심미치료라고 부릅니다. 치과 심미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재료의 선택이 필수적인데 특히 강화된 도자기 재료를 사용한 라미네이트는 우수한 결과를 보장해주는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진을 이용한 치료와, 이맥스 크라운을 이용한 치료 그리고 부분급속교정을 이용한 치아의 가지런한 배열 등도 치과 안티에이징 치료에 속합니다.

치과 라미네이트는 중등도 이하의 불규칙한 배열을 가진 경우, 치아 사이 사이에 구멍이 있는 경우, 치아의 표면이 매우 거칠거나 마모가 심하거나 파절이 있는 경우, 치아 표면의 변색이 심한 경우 등에 적용하는데 아래의 경우는 이러한 라미네이트 치료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 파절이 보이고 마모도 보이며 치아 표면이 거칠어 전반적으로 미적 기준에 부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 후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제거되어 아름다운 미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 전 모습

라미네이트 치료 후 모습

라미네이트 치료 후 모습

다음은 치아의 변색이 심하고 중등도 이하의 불규칙한 배열을 가진 40대 남성 환자로 라미네이트 치료 후 보다 젊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 후 공통적으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라미네이트 치료 전 모습

라미네이트 치료 후 모습

라미네이트 치료 전 모습

라미네이트 치료 후 모습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아가 작게 나온 왜소치를 라미네이트로 치료한 경우 입니다.

라미네이트 치료 전 모습

라미네이트 치료 후 모습

지금까지 치과 안티에이징 치료, 라미네이트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 삭제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내 치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젊고 아름다운 미소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라미네이트로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누려보세요.

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치과에 내방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대구 수성아트라인치과 원장 조상호

〈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가 아닌가요??

재미있게도 뮤지컬인 〈오페라의 유령〉을 오페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오페라와 뮤지컬,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닮아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가까이하기 엔 너무 먼 당신 같은 장르이다. 하지만 이 두 장르 간의 출생 비밀이 있는데 바로 뮤지컬의 조상이 오페라라는 사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뮤지컬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오페라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거치면서 뮤지컬이란 장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오페라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6세기 말에 탄생되었고, 뮤지컬은 19세기 영국에서 탄생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계 4대 뮤지컬이 모두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이라하면 미국을 떠올리는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뮤지컬들이 미국 브로드웨이로 진출하면서 크게 흥행을

이룬 탓에 미국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국은 웨스트엔드 뮤지컬이란 말이 생겨났다. 일반인들에게 뮤지컬과 오페라의 차이를 물어보면 뮤지컬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오페라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노래한다는 점을 제일 많이 이야기한다. 그렇다. 제일 큰 차이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발성법의 차이로 직결시킬 수가 있는데 오페라는 전문 발성 교육을 받은, 소위말하는 성악가들의 발성이고 뮤지컬은 TV에 나오는 가수들처럼 일반적인 발성을 사용한다.

앞서 말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오페라로 착각할 수 있는 이유가 제목에 '오페라'가 들어가서 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자주인공의 발성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토리의 특성상 성악가처럼 노래하고 실제로 성악 발성을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음역이 있어서 이런 이유로 착각할 수 있다. 마이크의 사용 여부에 따라 공연 장소도 달라지는데 뮤지컬은 전 출연자가 모두 마이크를 사용하기에 장소의 구애 없이 공연할 수 있다. 하지만 오페라는 성악가들의 육성으로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기 때문에 공연 장소의 제약이 있다. 그래서 주로 오페라 전용 극장인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이 되는데 공연장 내부는 말발굽 모양의 설계로 소리의 공명감을 극대화 시킨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극의 중심 요소인데 거의 모든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대사가 들어가는 오페라가 존재하는데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모차르트 당시 〈마술피리〉는 거의 뮤지컬에 가까울 정도로 이야기의 소재나 음악의 구성이 재미있어서 공연 때마다 거의 티켓이 매진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 그렇다면 뮤지컬은 무조건 대사가 있을까? 아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루어진 뮤지컬도 있다. 이런 뮤지컬을 성스루 뮤지컬(sungthroughmusical)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레 미제라블〉과 〈노트르담 드 파리〉 등이 있다. 이 외에 오페라도 MR 반주를 사용해 가수들이 핀 마이크를 차고 공연하는 경우가 있고, 원어로 공연되는 오페라가 어린생하여 대한민국이 선진 문화국가로 도약하는데 크게 발판이 되는 도시로 더욱 성장하길 희망한다.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장면 (사진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경대학교 뮤지컬과 외래교수
대구오페라하우스 토요문화학교
오페라 전문강사
우니따합창단 지휘자
홍 뮤지컬쇼콰이어 예술감독
대구세계합창축제 사무총장

최은미

무릎관절건강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

바로본병원장 윤 태 경

현대사회에서 50대 이후 중년의 환자들은 관절 주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담당의사가 관절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흔하게 들려지는 관절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학적으로 관절염이란 세균이나 외상과 같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관절 내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것을 총괄해서 지칭하는 병명이나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관절 연골의 파괴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연골파괴의 진행으로 관절염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손상된 관절 연골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의 뼈들이 돌출하게 되어 우리가 흔히 보는 관절 간격의 소실 및 골극 등이 생기게 된다. 관절의 통증들은 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선 검사 상에서 골극이 있고 관절이 손상되었다고 해서 모두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방사선 검사 상 손상의 정도가 심하게 보여도 통증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일차적인 치료 약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들 수 있다. 관절염 초기나 증상이 경미하고 관절내의 골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같은 약물치료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초기 관절염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미 연골 일부가 찢어져 통증이 있는 중기 관절염은 무릎에 1~2㎝정도의 구멍을 뚫어 치료할 수 있는 관절내시경으로 등의 외과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관절내시경 수술의 장점으로는 초소형 카메라로 관절 내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며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관절 내 연골이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무릎의 뼈와 뼈가 거의 붙은 상태인 말기 관절염일 경우 불가피하게 인공관절수술을 해야만 한다.

바로본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 중 하나가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다.

퇴행성관절염에 의한 인공관절치환술은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어 더 이상 연골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뼈를 깎아내고 그 자리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로 보통 65세 이상의 나이든 어르신들이 받게 되는 수술이다. 인공관절은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게 되면 살면서 재수술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65세 이하의 젊은 분들은 가급적 인공관절치환술을 피하고 경골근위부 절골술이나 반치환술 과 같은 최소한의 절개가 필요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르신들의 경우 무릎 수술을 받으면 누워서 지내야 한다거나 목숨이 위험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수술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상 인공관절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형외과적 수술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수술 전에 비해 탁월하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무릎의 인공관절수술은 정밀하게 무릎관절을 절개하고 수술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관절수술이 있다.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관절수술은 컴퓨터 모의 수술을 거쳐 사전에 수술결과를 예측 한 후에 네비게이션이 계획대로 정밀하게 뼈를 깎아내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방법이기 때문에 정밀한 수술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필요한 뼈만 깎아내기 때문에 재수술에도 효과적이다.

환자의 넓적다리뼈와 정강이뼈에 3차원 위치 센서를 부착해 컴퓨터를 통해 영상화된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적인 수술각도를 예측하여 좀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좋은 수술적 치료가 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관리를 통해 자기 무릎관절을 가능한 오래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허벅지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생활을 습관화 하여 자신의 무릎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미술감상 아는 만큼 보인다

자화상 (1875년)

근대회화의 아버지 폴 세잔
[PAUL CEZANNE]
(1839 ~ 1906)

생 빅토와르 산이 보이는 생피에르 묘지에 잠들어 있는 **폴 세잔은 20세기 서구미술의 실험적 작업의 개척자로 간주되는 화가로서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과 더불어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부유한 은행가의 사생아로 태어난 폴 세잔은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으나 고압적인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그의 꿈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사생아라는 사실에서 오는 불안감이 세잔을 평생 괴롭혔으며 엑스 법과대학을 중퇴하고 화가가 되었다. 스물두 살에 세잔은 파리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미술 공부를 했고 다른 화가들과도 교류했다. 그는 고향인 엑상프로방스로 돌아갔으나 화가로서 성공할 것을 다짐하며 1862년에 다시 파리로 향했다. 파리 살롱전에서 그의 작품들이 거절당했을 때 세잔은 다시 한 번 우울증에 빠졌으나 살롱전에서 작품을 거절당한 미술가들을 위한 대안인 1863년 '낙선전'에 참여한다. 20년 후인 1882년에 그의 작품은 처음으로 살롱전에 통과되었다.

화가의 아버지 (1866년)

1860년대 후반에 그는 대체로 서투르고 어쩌면 화난 것처럼 캔버스에 물감을 겹겹이 덧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식은 1866년에 그의 아버지를 그린 초상화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하지만 그는 곧 〈자드부팡의 길〉(1871경)과 같은 감각적인 그림들을 제작했다. 이 그림은 그의 아버지 소유의 공원을 그린 것으로 풍요롭고 색다른 해석이 특징적이다.

그의 초기작은 대체로 어둡고 극적이며 거칠게 바른 물감이 특징적이며 우울한 색조로 그려진 작품들은 다소 밀실 공포증적인 느낌을 주며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자드부팡의 마로니에 (18885-87)

자화상 (1875년)

1870년대 들어서면서 그의 양식은 변하기 시작했고 이 무렵 세잔은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제하면서 인상주의 기법 및 이론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인상파에서 주목했던 광선에 관심을 가졌으나 빛과 명암의 표면적인 분석을 넘어 기본이 되는 형태를 탐구했다.**

1886년 오르탕스와 결혼한 세잔은 아버지가 사망하며 물려준 유산으로 넉넉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그의 작품은 중요 미술 수집가들에 의해 선호되었으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세잔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다. 1895년 세잔은 화상 볼라보의 기획으로 첫 개인전을 열어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세잔은 플랑드르의 대가들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색조로 정물화를 그렸다. **세잔의 정물화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사과와 오렌지〉(1895~1900경)이다. 이 그림은 무미건조한 주제를 위대한 미술로 끌어올렸다.**

세잔은 풍경화나 자신의 흥미를 끄는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그렸다. **말년에 그의 작품은 조화롭고 몽환적으로 채색된 누드화 습작들로 특징 지워지는데, 그중 〈목욕하는 사람들〉(1894~1905경)이 가장 유명하다.**

생트 빅투아르산(山)은 세잔의 고향인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산으로 세잔은 1890년에서 1906년 사이 생트 빅투아르산을 주제로 수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보다 성숙한 작품세계를 완성해 나갔다. 그는 1901년부터 프로방스 지방의 로브 아틀리에에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의 모습에 빠져들었다. 멀리 평온하면서도 웅장한 생트 빅투아르산이 광활한 하늘 위로 우뚝 솟아 있고 그 앞의 들판에는 소나무와 마른 풀들이 우거져 있다. 이 그림에서 세잔은 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산의 본질을 탐구하여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산에 대해 섬세하게 관찰한 뒤 깊은 공간과 평면적인 구도를 동시에 표현한 새롭고 흥미로운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세잔은 정확하고 일정한 터치로 따뜻한 색조를 나란히 놓아 전망을 가깝게 하고 또 차가운 색조로 전망을 멀게 하였다. 그는 색채와 붓질만으로 입체감과 형태를 충분히 표현하였으며 선으로 그린 데생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수욕도 (1898~1905)

생트 빅투아르 산 (1904~1906)

오랜 당뇨병이 악화된 세잔은 1906년 10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소나기를 만나 심한 독감과 폐렴에 걸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 사망한 세잔은 그의 고향 엑상프로방스에 묻혔다.1907년 개최된 대규모 회고전은 젊은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세잔의 작품은 현대미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회화의 참다운 발견자로 칭송되고 있는 프랑스의 화가 폴 세잔은 사물의 본질적인 구조와 형상에 주목하여 자연의 모든 형태를 원기둥과 구, 원뿔로 해석한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하였다 추상에 가까운 기하학적 형태와 견고한 색채의 결합은 고전주의 회화와 당대의 발전된 미술 사이의 연결점을 제시했으며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어 '근대회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화가 유주희

1.암 보험의 종류와 범위

안녕하십니까.

AIG Advisor 대구지역단 팀장 이정환입니다.

이번호에는 질병의 대표적인 암 / 대리운전 교통사고 / 기업의 재산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암 (cancer)

이번에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들고 있는 암보험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누구나 가입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암보험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2001년 이전만 하더라도 암보험이면 말 그대로 암보험 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의료기술을 발달로 암 검진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암보험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게의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암 보험의 세부 분류

	암 진단금 지급 조건
면책 – 감액기간	손해(화재)보험– 대게 90일 면책/90일~365일까지는 50% 생명보험사 – 위와 동일하지만, 90일~2년까지 50%인 경우 있다
일 반 암	암으로 진단 시 지급
소액암 (유사암)	가장 대표적인 갑상선암. 그 외 경계성종양 / 제자리암등 2001년 이후 암진단금의 10~20% 지급
C I상품의 중대한 암	■ 성장속도가 빠르거나 전이가 빨라 주변세포를 파괴하는 경우 ■ 크기가 1.5mm 초과 / 초기 암은 제외될 가능성 높다 ■ 조직검사에서 확진
고액 특정 암	특정 고액암을 열거해서 해당되는 암에 해당 시 보상 (대게 5~10종으로 열거)

위에서 보듯이 암에 걸리더라도, 지급조건이 다양합니다.

소비자들은 암 보험을 가입해서 암에 걸리면 가입한 진단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겠지만,

상품에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기준과 진단금이 다릅니다.

● 일반암

예전에는 그냥 암보험이었지만, 보험사들의 리스크로 인해 다양한 상품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상품 성격을 말하고자 일반암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반암 상품은 정말 간단하게 암 진단이 내려지면 가입금액 100%지급되는 상품입니다.

● 소액암 혹은 유사암

암 보험 상품 가입 후 경계성 종양이나 갑상선암과 같은 암이 걸렸을 때, 내가 가입한 암진단금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2000~2001년 이후로는 일반암 가입 진단금의 10~20%만 지급합니다.

요즘은 거의 10%만 지급하는 추세이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 암을 5,000만원 가입했다 하더라도 소액암은 10~20% 500~1,000만원정도만 지급됩니다. 특정 소액암에 대해서만 30%까지 지급하는 일부 보험사도 있지만, 근래는 거의 10% 지급됩니다. 모든 소액암을 가입금액에 최고 50%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일반암/소액암을 내가 골라서 걸릴 수 없듯이,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안입니다.

● CI보험의 중대한 암 (Critical Cancer)

특히 CI (Critical Illness)보험의 중대한 암 (Critical Cancer)는 보험가입 시 명확히 지급과 진단기준을 이해하고

가입해야만 보험사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과 설계사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중대한 "이 단어가 보험사별로 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보험사의 약관 해석의 기준에 따라, 진단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암에 걸리기만 하면 지급된다면 좋겠지만, 위의 표대로 지급조건이 명확합니다.

또한 선지급을 해주는게 Ci보험상품의 방식중의 하나인데, 이때 "선지급"이라 함은 빨리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준다는 말이니, 정확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 고액암

보험사들의 암 보험상품의 특약으로 이 고액암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액암은 일반암에 비해 보험료가 최소3배에서 최대 50배 저렴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액암은 암 중에서도 말 그대로 고액의 치료비와 생명을 위협할만한 암들입니다.

뇌암이나 골수성 백혈병같은 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게의 경우는 5종에서 10종으로 열거해놓았으며, 열거된 암을 진단 받았을 때, 가입금액이 지급되어 집니다.

암보험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암보험을 가입 하는 것이 현명한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암보험의 가입은 일반암+소액암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대리운전 사고에 대비

■ 대리운전 교통사고! 과연 보험처리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안 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한 당연히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기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대리운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으로 처리가 완벽히 된다고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주가 사고의 일정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량사고 시 책임은 1차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망사고 시 대법원 판례에서, 차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했지만, 상황에 따라 책임 과실 상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인 사고 시 먼저 차주의 대인1으로(책임보험-사망. 후유장해1억-부상2천한도) 처리하고, 그 초과분은 대리운전 업체의 취급업자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젠 법안이 개정되어서 할증이 없지만, 그 이전에는 차주의 보험이 할증되는, 상황 이었고, 소비자들이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 대인사고 시 차량 소유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20% 과실

대물 사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만. 자차개념의 내 차량의 수리비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물 1억 자차 3,000만원 정도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교통사고 발생 시 내 차의 과실이 많거나, 혹은 대리운전 기사의 단독 사고 시, 자차 보험처리에 있어서 수리비가 초과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 차량 수리가격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 처리도 여러 번 처리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 차량시세 1,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 중 단독사고로 수리비가 2,000만원나왔다고 하여도, 차량시세 즉 잔존가 보다 더 높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렌트카 이용과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 면책 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적재물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4톤 이상은 대리운전 차종에 미해당) 차량 소유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으로 보험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면책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일반인들이 구상권/민사소송하기에는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대리운전 교통사고에 보상 문제에 해답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사마다 특약 명칭이 다르지만, 취급업자 혹은 대리운전 특약 입니다.

술자리가 많으신 분이라면, 꼭 이 특약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3. 재산종합보험

재산종합 보험(Package Insurance Policy)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상품내용, 영역에 대한 복잡성과 관리의 불편함으로 인해 하나의 증권으로 각종위험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업 고객층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상품이 재산종합보험(패키지 보험)입니다.

재산종합보험의 구성은

1. 재산종합위험담보(화재 및 기타위험)

2. 기계위험담보(기계 및 전기적 위험)

3. 기업휴지위험담보

4. 배상책임위험담보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특히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에서와 같이 담보위험 열거방식이 아닌 전위험담보를 전제로 면책위험에 포함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포괄담보방식(All Risks Cover)을 택하고 있으므로 담보의 범위가 넓은 보험입니다.

전위험담보 담보방식(재산종합보험)의 경우 특별히 면책으로 명시하지 않은 위험은 담보를 보장 받을 수 있어 열거위험방식(화재보험)보다 유리합니다.

기업체는 재산종합보험을 통하여 대규모 사업장 전체를 담보에 포함시켜 보험료 절감효과와 보험관리 업무를 줄여 경제성과 편리성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재보험과 재산종합 보험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 책임보험이냐 종합보험이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화재/낙뢰	○	○
도난	◇	○
파손	×	○
폭발	◇	○
풍수재	◇	○
전기적 사고	◇	◇
기계적 사고	×	○기계위험특약 담보
태풍	◇	○
연기	◇	○
우박	◇	○
스프링클러 누출	◇	○
항공기/차량손해	◇	○
소규모 공사	×	◇
추가 재산	×	◇
특별 비용	×	◇
보험 효력의 발생시점	보험료 입금시점	첫날 00:01
○보상 ◇특약가입 시 가능 X 면책		

대구FC

▶해외전지훈련
▶ 중국
▶2018년 01월 03일 ~ 2018년 02월 07일

▶국내전지훈련
▶ 제주도
▶2018년 02월 12일 ~ 2018년 02월 23일

2017 EAFF 동아시안컵
(조현우 선수 동아시안컵 국가대표 선발)
▶대한민국 vs 중국 | 2017년 12월 9일(토) 오후 4시 30분
▶대한민국 vs 북한 | 2017년 12월 12일(화) 오후 4시 30분
▶대한민국 vs 일본 | 2017년 12월 16일(토) 오후 7시 15분
▶장소 : 일본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 · 공연

▶대구 크리스마스페어
▶일정 : 2017년 12월 1일(금) ~ 2017년 12월 3일(일)
▶장소 : 대구 엑스코
▶문의 : 053)601-5098

크리스마스에 꼭 필요한 다양한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대구 크리스마스페어'! 동시에 각종 공연, 포토존, 이벤트, 체험행사 등이 진행되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며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준비는 '대구 크리스마스 페어'에서 함께 하세요.

▶오! 캐롤 - 대구
▶일정 : 2017년 12월 8일 ~ 2017년 12월 25일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문의 : 1599-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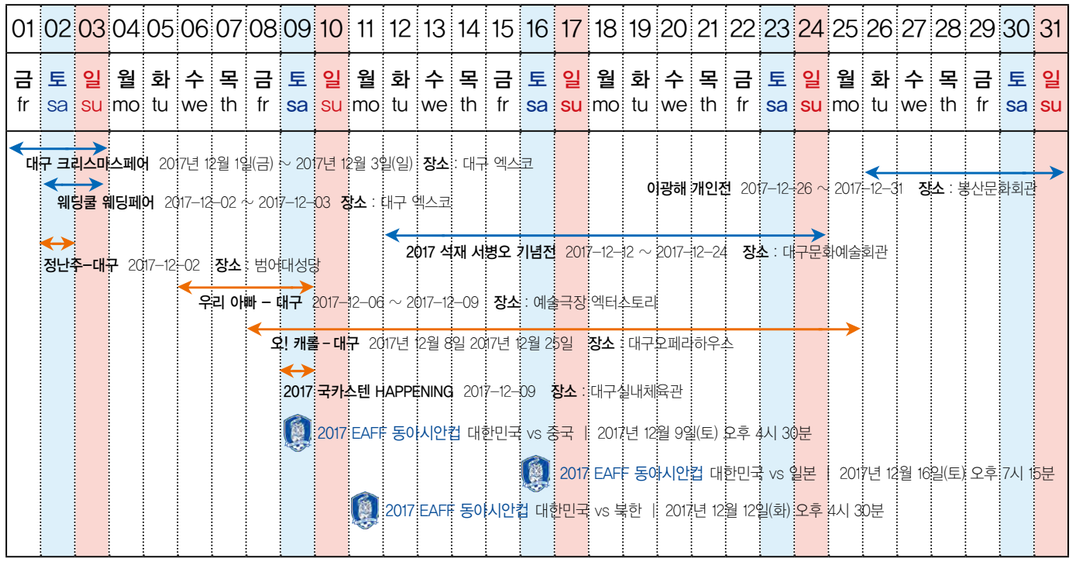
팝의 거장 닐 세다카의 빅히트 쇼뮤지컬! 2016년 한국 초연한 All age 추천 뮤지컬 〈오!캐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화려한 볼거리와 신나는 무대, 그리고 감동. 2017년 12월! 가족, 친구, 연인과의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그때로. All Age All Move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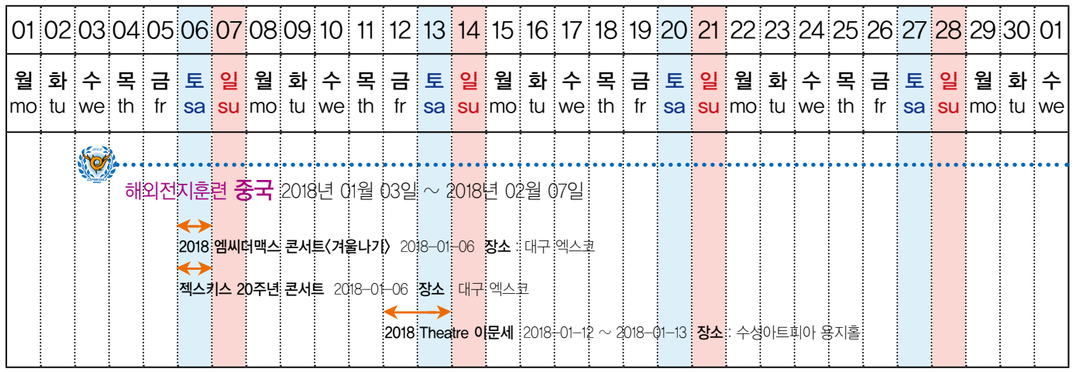
Football & Culture Calender

전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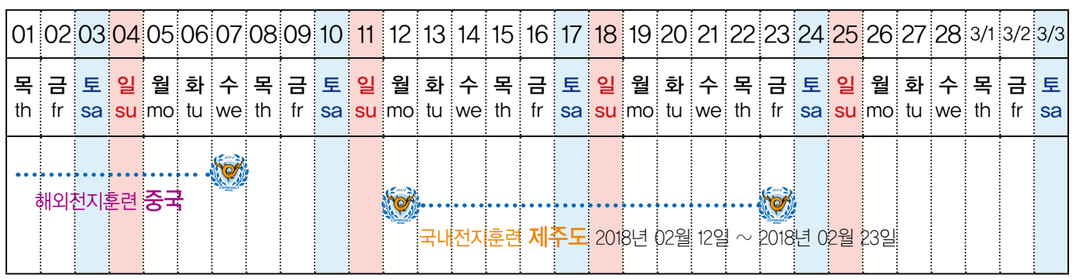
12 2017



01 2018



02 2018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맘마미아! 이후 가장 신나는 뮤지컬!

One way ticket, Oh! Carol, You mean everything to me 등
팝의 거장 닐 세다카의 귀에 익숙한 히트팝 명곡과
최고의 배우! 화려한 의상과 무대까지!

당신의 잊지 못할 신나는 12월을 만들어드립니다

뮤지컬 오! 캐롤

Breaking up is hard to do

BREAKING UP IS HARD TO DO Featuring the songs of Neil Sedaka | Book by ERIK JACKSON and BEN H. WINTERS
Music by NEIL SEDAKA | Lyrics by NEIL SEDAKA, HOWARD GREENFIELD, and PHILIP CODY

남경주 서범석 김선경 최정원 임진아 정상윤 서경수 김승대 조휘 오진영 최우리 정단영

2017. 12. 8(금) ~ 25(월) 대구오페라하우스

평일 7시30분 / 토 3시, 7시 / 일 3시 (단, 24일&25일 2시, 6시 / 월요일 공연없음)

티켓 금액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주최 TBC 주관 ㈜예술기획 성우 제작 SMG SHOW MEDIA GROUP 협찬 양우 내안愛

문의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예매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DAEGU FC
DAEGU FOOTBALL CLUB

〈Angel Club〉은

한국 정기간행물 윤리위원회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gel Club〉은 대구FC의 후원단체인 엔젤클럽을 중심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대구FC 및 엔젤클럽 관련 소식을 전하고 교양을 전달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매거진입니다.

〈Angel Club〉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기관 :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
▶발행 · 편집인 : 최종태
▶편집장 : 김승근
▶엔젤클럽 사무국 : 사무총장 김종두, 정연주
▶포토그래퍼 : 김진홍
▶편집기자 : 정연주, 신성영, 정동영, 최지수
▶편집디자이너 : 김기대, 김정주
▶인쇄 : ㈜케이프린텍(대표 한금재)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Angel Club〉은 독자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ngel Club〉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엽서를 통해 의견을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엽서를 보내주신 분 중 퀴즈 정답자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우.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 11. 28 ~2018. 08. 20
대구 수성우체국 승인 제 40195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받는 사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담당자앞
TEL 053.602.7307 FAX 053.602.7306
4 2 0 6 4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Angel Club

*가입 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 정보						가입번호	2017 -
성명 (회사명)		생년 월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주소						E-mail	
추천인				결혼기념일			

후원 금액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에 표시해주세요)
□ 100만원 이상 – ( )원

결제 방법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엔젤클럽 추천 약정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람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하는 "후원 릴레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추천시기
□ 바로 추천(아래의 추천 대상자 인적사항을 바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 내 추천(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 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내 사항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42064)
팩스 송부 : 053)602-7306
※문의 사항은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구FC 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WINTER, 2017, Vol.2

Angel Club 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대구FC 엔젤클럽 소식지

대구FC와 함께 만드는 멤버십 매거진 〈Angel Club〉은
대구FC를 응원하는 엔젤클럽의 후원지입니다. 독자님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내용과 다음 호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내용을 적어주십시오.

2. 〈Angel Club〉을 읽고 편집부에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3. 〈Angel Club〉 독자 퀴즈
미래테크 박해대 가족엔젤은 가족이 모두엔젤에 가입한 가장 큰 규모의 가족엔젤입니다.
박해대 가족엔젤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일까요?

답 :

연락처 :

※엽서를 보내주신 분 중 퀴즈 정답자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2017 Vol.2

엔젤클럽 2017 창간호 독자선물 당첨자

정○욱 님 장○경 님
안○민 님 성○빈 님 윤○자 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안내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입신청서 엔젤클럽 사무국 보관

▶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
- Tel : (053) 602-7307
- Fax : (053) 602-7306
- Phone : 010-3861-4505 (대구FC 엔젤클럽 사무총장 : 김종두)

■ 후원금액

▶ 100만 원 이상 희망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후원금 처리방법
- 후원금은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되고 실제로 입장권이 지급되므로 사업장의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 참고 : 대구FC가 시민의 힘으로 창단한 시민구단으로, 주식회사 이다보니 상법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 결제방법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카드 결제 시 엔젤클럽 사무실 또는 홈경기 시 엔젤상견례장소)

▶ 계좌번호: 대구은행 505-10-166391-1 ㈜대구시민프로축구단

■ 가입 혜택 안내

▶ 기념품 : 엔젤클럽 자켓, 머플러, 사인볼(1회)

▶ 엔젤회원 확인 및 홈경기 관람 ID 카드 지급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대구FC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gel Club〉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기고나 사업제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임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처 /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우. 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

FW11.
세징야

오늘은 클래식! 내일은 챔피언!
대구FC 엔젤클럽이 '희망'을 릴레이 합니다
Angel Club
DGB대구은행
아진산업㈜
AEG

Angel Club